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운영성과 및 평가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운영성과 및 평가』 용역
최종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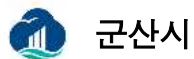
2020. 3.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진 및 자문위원

연구책임	김용환(호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정일(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위원	이원재(고용노동부 군산지청 팀장)
	김인수(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 소장)
	김홍중(전북인력개발원 교수)
	최경옥(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홍영기(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 단장)
	이만수(군산산단경영자협의회 사무국장)
	오국선(군산시 일자리정책과 과장)
	김문숙(군산시 일자리정책과 계장)
	정숙현(군산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
	이현미(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팀장)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내용	1
제2장 군산시 고용위기의 현황과 고용지표 분석	4
제1절 군산시 고용지표 변동 분석	4
1. 군산시 고용지표 총괄	
2. 군산시 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 추이	
3. 군산시 고용보험 주요 통계	
4. 군산시 고용지표 변동의 시사점	
제2절 군산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주력산업의 노동시장 실태	12
1. 군산시 산업단지 생산·수출·고용동향	
2. 지역경제 제조업 업황 및 휴·폐업 현황	
3. 지역 주력산업 침체 지속으로 산업기반 약화	
4. 지역상권의 몰락 및 인구유출 지속으로 지역사회 피폐	
제3장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및 운영성과	35
제1절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총괄	35
1. 사업주 지원제도	
2. 근로자 지원제도	
제2절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운영성과	37
1.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성과	
2. 사업주 지원성과	
3. 근로자 지원성과	

4. 「군산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성과	
5.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에 따른 고용상황 회복도	
제4장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평가	7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1
제2절 사업주 조사결과	72
1. 응답기업의 특성	
2.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활용현황	
3.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서비스 평가	
4.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제3절 근로자(퇴직자) 조사결과	86
1. 응답자의 특성	
2.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활용현황	
3.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서비스 평가	
4.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5. 근로자(퇴직자)의 경제활동 상태	
제4절 사업주 및 근로자 건의	103
제5장 요약 및 정책 건의	104
제1절 요약	104
제2절 정책 건의	107
[부록]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설문지	113

표 목 차

<표 1> 군산시 고용지표 추이(2015-2019년)	4	<표 2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	31
<표 2> 군산시 고용지표 추이(2018-2019년)	5	<표 27> 군산시 점포 공실률 변동 추이	32
<표 3>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8	<표 28> 군산시 인くい동 추이	34
<표 4> 업종별 피보험자수 증감 현황	9		
<표 5> 군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가동 추이	12		
<표 6> 군산지역 수출현황	13		
<표 7> 전북 제조업 업황 BSI	15		
<표 8> 군산시 휴폐업체수 추이	15		
<표 9> 군산시 주요 산업 휴폐업체수 추이	16		
<표 10> 전국 및 전북지역 중화학 공업품 수출현황	17		
<표 11> 전국·전북지역의 중화학 공업품 수출 증감을 비교	17		
<표 12> 산업·고용위기 전 한국GM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위상	18		
<표 13> 군산시 주력산업 입지계수(LQ)	19		
<표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	19		
<표 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	20		
<표 16> 전북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추이	21		
<표 17> 전북 자동차 생산 업체별 생산 및 수출현황	21		
<표 18>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22		
<표 19> 전북 자동차산업 동향	22		
<표 20> 국내/전북 자동차산업 생산·내수·수출 추이 비교	23		
<표 21> 국내/전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추이 비교	24		
<표 22>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일자리 감소	29		
<표 23> 세계 조선업 발주 현황 및 전망	29		
<표 24> 국내 조선업 수주량 현황 및 전망	30		
<표 25> 군산조선소 재가동 노력 및 조선산업 지원실적	31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내용

제1절 과업의 개요

- 1. 과업명 :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운영성과 및 평가
- 2. 사업기간 : 2020. 1. 17. ~ 2020. 3. 31.
- 3. 사업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 ①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결과보고서를 고용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의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용위기지역 등의 운영 성과 및 평가
 - 2.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이 지역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
 - 3. 기타 건의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역고용 상황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중 정례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파급효과 상시 파악 및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반영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 체감도 향상
-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결과보고서를 운영성과 및 평가 결과보고서로 같음

4. 사업추진 목적

-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의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지원정책의 효과 증대

-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지도를 향상하여 이해당사자와 주민참여 확대로 지원대책의 효율성 향상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사업과 홍보 등에 대한 성과 및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등 전략개발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방법

1. 과업의 주요 내용

- 군산시 고용지표 분석 및 전망(2015년~2019년)
-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운영 성과 분석
 - 정책 수혜자, 지역주민, 노동계, 경영계 등 의견 청취 포함
- 지역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성과 평가
- 정책 개선사항 및 제안사항

2. 사업 추진방법

- 문헌 및 통계분석을 통한 고용 및 산업구조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 대상 : 고용위기 지원제도 수혜자 약 200명 (기업 100개, 근로자 및 퇴직자 100명 등)
-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명 등)
 - 기업, 근로자(퇴직자) 및 고용위기 지원 유관기관 대표 등 20-30명 면담
 - 고용위기에 대한 인식, 고용위기 지원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건의 등
- 전문가 및 지원기관 의견수렴
 - “고용위기지역 운영성과 및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제2장 군산시 고용위기의 현황과 노동시장 분석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운영성과 및 평가」 자문위원 및 연구진

구분	성명	소속	직위	
1	자문위원	이원재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팀장
2	자문위원	김인수	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	소장
3	자문위원	김홍중	전북인력개발원	교수
4	자문위원	최경옥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5	자문위원	홍영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	단장
6	자문위원	이만수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사무국장
7	자문위원	오국선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과장
8	자문위원	김문숙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계장
9	자문위원	정숙현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
10	자문위원	이현미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팀장
11	연구책임	김용환	호원대학교	교수
12	공동연구	김강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13	공동연구	김정일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실장

제1절 군산시 고용지표 변동 분석

1. 군산시 고용지표 총괄

□ 고용관련 지표는 다소 개선 : 체감 고용지표 개선은 시일 소요 전망

○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2018. 4. 5.) 이후 예산투입 등 지원대책 결과 2019년 하반기 고용률, 청년고용률, 취업자 수, 피보험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는 2018년 하반기 대비 다소 상승하였으나, 군산시민이 체감하는 고용 지표 개선은 다소 시일 소요 전망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2017. 7.), 한국GM 군산공장 폐쇄(2018. 5.) 등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2018.4.5.-2020.4.4., 연장 1년)

고용위기지역 지정(2018. 4. 5) 이후 고용지표 변동 추이

- ▶ 고용률(15세 이상): (18년하) 53.1% → (19년하) 55.6% ↑ 2.5%p
 - ▶ 고용률(15~64세): (18년하) 58.5% → (19년하) 60.7% ↑ 2.2%p
 - ▶ 청년고용률(15~29세): (18년하) 27.5% → (19년하) 29.4% ↑ 1.9%p
 - ▶ 취업자수: ('18년하) 123.2천명 → ('19년하) 128.9천명 ↑ 5.7천명(4.6% 증가)
 - ▶ 피보험자수: ('18년12월) 56,562명 → ('19.12월) 59,692명 ↑ 3.1천명(5.5% 증가)
- * 자료출처: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한국고용정보원 EIS

<표 1> 군산시 고용지표 추이(2015-2019년)

구분	군 산									
	2015 (상)	2015 (하)	2016 (상)	2016 (하)	2017 (상)	2017 (하)	2018 (상)	2018 (하)	2019 (상)	2019 (하)
15세 이상 인구	230.4	231.5	232.5	233.9	233.1	232.7	232.0	232.0	232.2	231.9
경제활동인구	128.0	129.2	130.3	131.0	132.6	125.6	128.5	127.2	131.0	131.8
취업자	127.1	128.0	128.4	128.9	130.5	122.5	123.2	123.2	126.4	128.9
실업자	0.9	1.3	1.9	2.1	2.1	3.1	5.3	4.0	4.6	2.9
비경제활동인구	102.4	102.2	102.1	102.9	100.5	107.2	103.5	104.8	101.2	100.0
경제활동 참가율	55.5	55.8	56.1	56.0	56.9	54.0	55.4	54.8	56.4	56.9
고용률	55.2	55.3	55.2	55.1	56.0	52.6	53.1	53.1	54.4	55.6
15~64세 고용률 (OECD 기준)	60.2	61.0	60.6	60.1	61.4	59.2	59.3	58.5	59.6	60.7
실업률	0.7	1.0	1.5	1.6	1.6	2.5	4.1	3.2	3.5	2.2

2. 군산시 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 추이

1) 고용률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전국 고용률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2019년 하반기 고용률(15~64세)은 60.7%로 전년 동기(58.5%) 대비 2.2%p 상승하였으나, 전국 고용률 67.1% 대비 6.4%p 낮음
- * 고용률(15세 이상)은 55.6%로 전년 동기(53.1%) 대비 2.5%p 상승하였으나, 전국 고용률 60.8% 대비 5.2%p 낮음

<표 2> 군산시 고용지표 추이(2018-2019년)

(단위: 천명, %, %p)

구 분	군 산		
	2018(하)	2019(하)	증감
15세 이상 인구	232.0	231.9	-0.1
경제활동인구	127.2	131.8	4.6
취업자	123.2	128.9	5.7
실업자	4.0	2.9	-1.1
비경제활동인구	104.8	100.0	-4.8
경제활동참가율	54.8	56.9	2.1
고용률	53.1	55.6	2.5
15~64세 고용률(OECD기준)	58.5	60.7	2.2
실업률	3.2	2.2	-1.0

- 취업자는 12.9만명으로 전년 동기(12.3만명) 대비 5,700명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56.9%)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54.8%), 이는 취업자가 증가(+5,700명), 실업자가 감소(-1,100명)한 것에 기인
 - 군산시 인구는 2016년 277,551명 대비 2019년 12월 270,131명으로 7,420명 감소
 - 2016년 277,551명, 2017년 274,997명, 2018년 272,645명, 2019년 270,131명
- 15~64세 고용률, 15세이상 고용률 모두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 까지 큰 폭 하락 후 2019년부터 상승 추세



2) 실업률은 다소 감소, 고용위기 전 실업률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 : 고용위기 전 실업률 0.7-1.6%, 현재 실업률은 2.2%

- 실업률은 2019년 하반기 2.2%로 전년 동기(3.2%) 대비 1.0%p 감소하였으나 고용위기 전 실업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함.



3) 청년층 고용률 최하위 수준 : 전국 43.8%, 군산 29.4%

- 2019년 하반기 청년층 고용률은 29.4%로 전년 동기(27.5%) 대비 1.9%p 상승하였으나 전국 고용률 43.8%에 비해서는 14.4%p 낮음



3. 군산시 고용보험 주요 통계

1) 사업장 현황

○ 군산지역 사업체(17,498개) 중 100인 이상 기업은 121개로 0.7%에 불과

(2019. 12월,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1인~4인	5인~9인	10인~49인	50인~99인	100인~299인	300인~499인	500인~999인	1000인 이상
사업체수	17,498	13,313	2,100	1,779	185	94	15	6	6
근로자수	75,582	14,890	9,143	21,163	8,061	7,898	3,196	2,465	8,766

○ 산업별로는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임

(2019. 12월,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사회복지	기타
사업체수	17,498	219	2,075	6,682	2,410	1,617	1,218	3,277

2) 구인·구직인원 감소 : 산업위기 지속 및 퇴직인구 타 지역 유출 영향

- 2019년 신규 구인인원은 10,345명으로 전년 대비 647명(5.9%) 감소
 - 신규 구직자수는 20,601명으로 전년(21,122명) 대비 521명(2.5%) 감소
 - 취업자수는 6,217명으로 전년(5,387명) 대비 830명(15.4%) 증가
 - 구인신청(10,345명) 기업 중 50인 미만 업체 구인(8,261명)이 79.9%를 차지, 업종은 기계생산, 관리사무, 운전·운송 순
 - * 50인 미만(8,261명), 50~149인(1,471명), 150~299인(358명), 300인 이상(255명)
 - 2018년 구직신청자(20,601명) 중 청년층(4,919명)은 23.9%를 차지, 이 중 남성(2,245명)은 45.6%, 여성(2,674명)은 54.4%
 - * 30대 5,152명(25%), 40대 5,051명(24.5%), 50대 3,182명(15.4%), 60세 ↑ 2,297명(11.1%)
- (2019. 12월, 단위: 명)

구분	계	관리사무	기계생산	서비스	보건의료	사회복지 종교	운전 운송	기타
구인	10,345	1,312	4,258	467	320	446	563	2,979
구직	20,601	5,106	5,022	2,668	1,309	1,269	1,168	4,059

○ 임금은 구직자의 58%, 구인기업의 41%가 월 200만원 이상 임금을 제시하여 전라북도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 3,293천원의 53%에 해당

3)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수 및 실업급여액 감소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18.5월)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증가가 주 요인

- 2019.12월(1~12월 누적) 기준 군산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수는 6,126명, 실업급여액은 47,35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7,401명, 55,011백만원) 대비 1,275명(17.2%), 7,656백만원(13.9%) 각각 감소
- 이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18.5월)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증가가 주요인(실업급여 수급자 17.6월 541명, 18.6월 1,314명, 19.6월 4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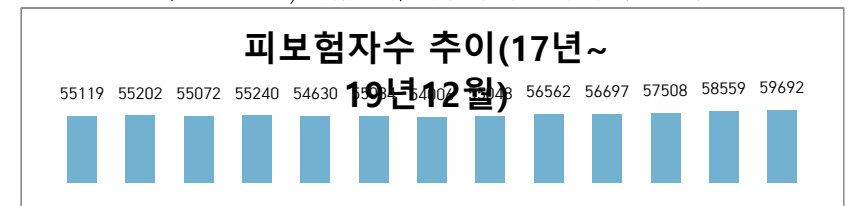
<표 3>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수급 자격자 수	실업급여액
2019년	6,126	47,355
2018년	7,401	55,011
2017년	6,614	41,782
2016년	5,821	34,780
2015년	6,173	33,548

4)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추세 : 제조업은 감소, 개인 서비스업은 증가

○ 군산지역 피보험자수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18.5.31.)로 감소('18년 5월 → 6월 1,078명 감소) 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임



○ 2019. 12월말 피보험자수는 59,692명으로 전년 동월(56,562명) 대비 3,130명(5.5%) 증가

〈표 4〉 업종별 피보험자수 증감 현황(대분류 기준)

구 분	2018.12월	2019.12월	증감	증감률
합 계	56,562	59,692	3,130	5.5
농업, 임업 및 어업	200	204	4	2
광업	69	66	-3	-4.3
제조업	19,440	19,407	-33	-0.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27	624	-3	-0.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32	651	19	3.0
건설업	3,183	3,505	322	10.1
도매 및 소매업	3,235	3,666	431	13.3
운수 및 창고업	4,403	4,639	236	5.4
숙박 및 음식점업	2,158	2,540	382	17.7
정보통신업	132	116	-16	-12.1
금융 및 보험업	682	685	3	0.4
부동산업	1,400	1,473	73	5.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64	1,937	173	9.8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522	2,593	71	2.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208	3,455	247	7.7
교육 서비스업	2,073	2,099	26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226	10,228	1,002	10.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48	534	186	5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04	1,116	12	1.1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	0	0	-
국제 및 외국기관	156	154	-2	-1.3

- 이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02명), 도매 및 소매업(431명), 숙박 및 음식점업(382명), 건설업(322명), 운수 및 창고업(236명)의 피보험자수 증가가 등 질적으로 보면 주로 개인사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됨.

5) 자동차부품 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감소

- 사업장은 1,712개소로 전년 동월(1,666개소) 대비 46개소(2.8%) 증가
- 피보험자 수는 19,478명으로 전년 동월(19,501명) 대비 23명(0.1%) 감소

(단위: 개소, 명,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IS)

구 분	2018. 12	2019. 12	증감	증감률
사업장수	1,666	1,712	46	2.8
피보험자수	19,501	19,478	-23	-0.1

○ 자동차부품업 현황(중분류 기준)

- 제조업 내 사업장수 및 피보험자 차지 비중은 각각 7.0%, 15.0%
- 사업장은 120개소로 전년 동월(122개) 대비 2개소(1.6%) 감소
- 피보험자는 2,926명으로 전년 동월(3,127명) 대비 201명(6.4%) 감소

(단위: 개소, 명,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IS)

구 분	2018. 12.		2019. 12.		증감률	
	개소(명)	제조업내 비중	개소(명)	제조업내 비중	증감	증감률
사업장	122	7.3	120	7.0	-2	-1.6
피보험자수	3,127	16.0	2,926	15.0	-201	-6.4

6) 임금 체불금액 증가

- 2019년 12월 체불 근로자수는 2,533명, 체불금액은 15,025백만원으로 체불 근로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3명(14%) 감소하였으나, 체불금액은 993백만원(7%) 증가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체불 근로자 수	체불 금액
2019년	2,533	15,025
2018년	2,946	14,032
2017년	3,064	15,008
2016년	2,643	12,728
2015년	2,176	10,845

- 2019년 12월 폐업·도산(10개사)으로 근로자 168명에게 체당금 총 1,049백만원 지급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체당금 지급 근로자수	체당금 지급액
2019년	168	1,049
2018년	250	1,470
2017년	621	4,133
2016년	382	2,240
2015년	462	2,233

4. 군산시 고용지표 변동의 시사점

- 2019년 군산시 고용 관련 지표는 2018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군산시 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고용지표 개선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2019년 하반기 고용률은 60.7%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아직 전국 대비 전국 고용률 67.1% 대비 6.4%p 낮음.
- 2019년 하반기 실업률은 2.2%로 낮아졌으나 고용위기 전 실업률 0.7-1.6%에 비해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2019년 하반기 청년층 고용률은 29.4%로 전국 43.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19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감소 추세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및 운수 및 창고업의 피보험자수 증가 등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 2019년 군산지역 자동차부품 사업장 및 피보험자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 임금 체불금액도 증가하여 여전히 제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제2절 군산시 산업구조 변화와 주력산업 노동시장 실태

1. 군산시 산업단지 생산·수출·고용동향

- 군산산업단지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에도 생산·수출·고용 등 하락 지속
 - 군산지역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생산·수출·고용은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지역 지정 전에 비해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 군산지역의 산업기반이 크게 위축된 상태
 - 군산국가산업단지 생산은 산업위기 지원 이전부터 감소('16년 72,127억원→'19년 58,612억원)하였으며 수출은 더 큰 폭으로 하락('16년 25,187백만달러→'19년 12,297십만달러) 추세

<표 5> 군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가동 추이

년 도	군산 국가산업단지			군산 지방산업단지		
	생산 (억원)	수출 (십만달러)	고용 (명)	생산 (억원)	수출 (십만달러)	고용 (명)
2007년	44,985	28,166	8,251	27,847	6,306	5,770
2008년	49,113	32,745	9,368	39,068	9,058	6,086
2009년	58,399	23,847	13,905	40,231	13,886	6,513
2010년	78,723	48,359	14,709	48,315	20,088	6,603
2011년	102,416	55,341	16,576	59,647	23,217	7,013
2012년	103,309	59,409	18,829	55,765	14,619	7,006
2013년	100,304	45,040	19,428	55,814	16,819	6,831
2014년	74,860	31,224	18,432	52,914	15,047	6,948
2015년	80,797	24,591	17,293	53,761	16,623	6,895
2016년	72,127	25,187	16,103	47,340	6,357	6,546
2017년	69,060	24,672	12,864	46,998	12,681	6,651
2018년	66,963	15,993	11,297	44,267	9,769	6,591
2019년	58,612	12,297	11,394	38,449	8,021	6,602

* 출처: 군산시 경제지표, 201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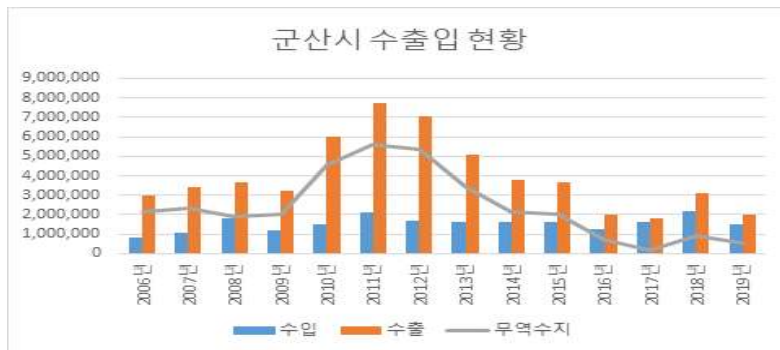
* 주: 2019년 군산 국가산업단지는 각각 11월, 군산 지방산업단지는 3/4분기 누계 및 평균

□ **군산시 전체 수출액, 2012년 최고점 대비 1/3 수준, 자동차 조선산업 수출액은 2012년의 4.6% 수준으로 추락**

- 군산시 수출은 자동차, 조선의 위기로 호황기인 2012년에 비해 크게 위축
 - 2019년 수출은 2012년 경기 정점의 7,031백만불의 34%인 2,384백만불 수준으로 두 산업의 위기로 인해 군산 수출은 크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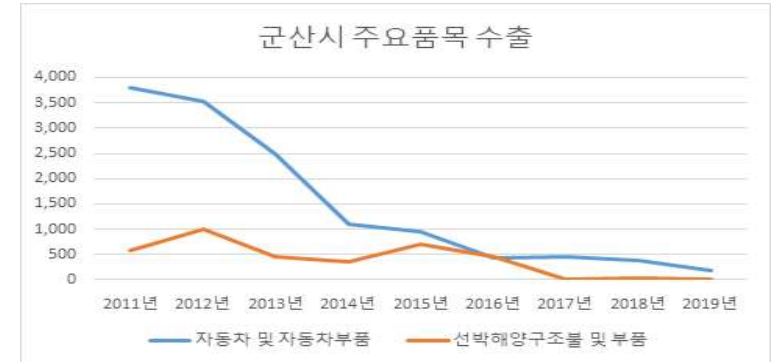
<표 6> 군산지역 수출현황

구 분 (백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군산시 (A)	7,031	5,052	3,799	3,647	2,011	1,830	3,108	2,384
합 계 (B=C+D+E)	4,530	2,955	1,448	1,663	903	464	416	210
자동차 (C)	2,132	1,569	646	623	180	200	146	98
자동차 부품 (D)	1,384	930	454	323	256	253	229	109
선박 및 부품 (E)	1,014	456	348	717	467	11	41	3
군산시 비중 B/A	64.4%	58.5%	38.1%	45.6%	44.9%	25.3%	13.4%	8.8%
자동차 C/A	30.3%	31.1%	17.0%	17.1%	9.0%	10.9%	4.7%	4.1%
자동차 부품 D/A	19.7%	18.4%	12.0%	8.9%	12.7%	13.8%	7.3%	4.6%
선박 및 부품 E/A	14.4%	9.0%	9.1%	19.6%	23.2%	0.6%	1.3%	0.1%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 2012년 군산시 수출의 64.4%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 차지했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수출 비중은 8.8%로 큰폭 하락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 **최근 산업단지 근로자 수 반등 불구 예전 수준의 80% 수준에 그쳐**

- 산업단지 근로자 수가 산업위기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나 예전 수준에는 크게 하회



* 주 : 산업단지 (국가산단, 일반산단), 국가산단 근로자수; 19년 11월 고용인원 기준/ 일반산단 근로자수; 19년 3/4분기 고용인원 기준자료

2. 지역경제 제조업 업황 및 휴·폐업 현황

□ 위기지역 지정 후에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하락 : 2년 전 대비 9.1% 감소

- 전북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최근 6개월 평균은 61로 2년 전 동기 평균인 68에 비해 9.1% 감소하였고 위기지역 지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음

〈표 7〉 전북 제조업 업황 BSI

일시(월)	제조업 업황 BSI	일시(월)	제조업 업황 BSI	일시(월)	제조업 업황 BSI
2019. 01	61	2018. 01	63	2017. 01	61
2019. 02	62	2018. 02	64	2017. 02	67
2019. 03	63	2018. 03	67	2017. 03	76
2019. 04	73	2018. 04	66	2017. 04	76
2019. 05	67	2018. 05	70	2017. 05	82
2019. 06	68	2018. 06	61	2017. 06	83
2019. 07	68	2018. 07	60	2017. 07	72
2019. 08	59	2018. 08	56	2017. 08	67
2019. 09	59	2018. 09	59	2017. 09	67
2019. 10	61	2018. 10	57	2017. 10	65
2019. 11	64	2018. 11	58	2017. 11	75
2019. 12	62	2018. 12	59	2017. 12	68
2020. 01	63				

* 출처: 통계청

□ 군산시 휴·폐업 업체 수 2019년 1,123개로 크게 증가

- 산업위기 이후 군산시 휴폐업 업체 수는 크게 증가하여 2018년 980개, 2019년 1,123개가 순 휴폐업 하여 경기침체가 현재도 진행 중임

〈표 8〉 군산시 휴폐업체수 추이

일자(월)	누적휴폐업	순 휴폐업	일자(월)	누적휴폐업	순 휴폐업
2018.01	6,166		2019.01	7,146	80
2018.02	6,264	98	2019.02	7,309	163
2018.03	6,324	60	2019.03	7,455	146
2018.04	6,436	112	2019.04	7,534	79
2018.05	6,505	69	2019.05	7,609	75
2018.06	6,581	76	2019.06	7,680	71
2018.07	6,673	92	2019.07	7,786	106
2018.08	6,798	125	2019.08	7,867	81
2018.09	6,881	83	2019.09	7,973	106
2018.10	6,972	91	2019.10	8,074	101
2018.11	7,066	94	2019.11	8,175	101
2018.12	7,146	80	2019.12	8,269	94

* 출처: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주력산업의 휴·폐업 지속 및 종사자 수 감소 지속 :

2018-2019년 휴·폐업 17개, 최근 4년 간 종사자 수 약 2천명 감소

- 산업 및 고용위기 업종에서 '18년 9개, '19년 8개 업체가 휴폐업을 하였고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15년 12월 누적 종사자수가 1,752명에서 '19년 153명으로 크게 축소

〈표 9〉 군산시 주요 산업 휴폐업체수 추이

산업	일자(년)	누적휴폐업	순 휴폐업	누적종사자수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2015.12	71		3345
	2016.12	79	8	3147
	2017.12	82	3	3186
	2018.12	85	3	2780
	2019.12	87	2	270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015.12	72	-	1752
	2016.12	83	11	1260
	2017.12	92	9	228
	2018.12	98	6	216
	2019.12	104	6	153

* 출처: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전북의 중화학공업 수출 전국과의 격차 확대 : 전국 -0.4%, 전북 -39.9%

-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이 포함된 중화학공업 수출을 보면 전국은 약보합세(-0.4%)를 보이거나 전북은 큰 폭으로 하락(-39.9%)
- 전라북도 수출 감소는 수출비중이 큰 중화학 공업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특히 수송장비의 수출규모 하락이 두드러짐

<표 10> 전국 및 전북지역 중화학 공업품 수출현황(단위 : 천달러)

품 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율
전 북	8,867,899	7,322,917	6,904,911	5,196,161	5,236,138	6,502,141	5,328,819	-39.9%
가. 화공품	2,323,114	2,310,694	2,141,505	1,401,147	1,712,130	2,612,642	2,058,526	-11.4%
나. 철강제품	493,223	608,196	380,635	384,892	611,629	1,044,601	963,682	95.4%
다. 기계류와 정밀기기	895,688	861,965	781,794	684,514	662,089	827,610	684,023	-23.6%
라. 전기 전자제품	622,505	577,005	401,009	441,145	339,860	322,941	317,832	-48.9%
마. 수송장비	4,472,760	2,914,573	3,123,667	2,153,525	1,824,954	1,607,511	1,232,263	-72.4%
바. 기타	60,609	50,484	76,301	130,938	85,476	86,836	72,494	19.6%
전 국	452,769,823	467,897,979	445,115,411	419,660,778	486,839,926	506,058,471	451,106,706	-0.4%
가. 화공품	64,441,742	65,576,726	55,868,547	55,308,464	65,682,580	73,959,154	67,383,365	4.6%
나. 철강제품	43,620,088	47,504,448	41,407,034	39,945,351	46,881,443	48,060,625	44,172,308	1.3%
다. 기계류와 정밀기기	55,264,893	57,879,166	57,347,660	55,173,152	63,284,891	69,379,738	67,658,377	22.4%
라. 전기 전자제품	171,177,138	174,446,201	170,508,726	159,392,719	191,994,102	214,809,175	171,459,120	0.2%
마. 수송장비	113,120,851	116,467,871	112,821,081	100,967,940	108,768,092	87,383,033	87,704,632	-22.5%
바. 기타	5,145,112	6,023,567	7,162,364	8,873,152	10,228,818	12,466,747	12,728,904	147.4%

* 출처 : 수출입무역통계

<표 11> 전국·전북지역의 중화학 공업품 수출 증감율 비교

품 목	전국 증감율	전라북도 증감율
4. 중화학 공업품	-0.4%	-39.9%
가. 화공품	4.6%	-11.4%
나. 철강제품	1.3%	95.4%
다. 기계류와 정밀기기	22.4%	-23.6%
라. 전기, 전자제품	0.2%	-48.9%
마. 수송장비	-22.5%	-72.4%
바. 기타	147.4%	19.6%

3. 지역 주력산업 침체 지속으로 산업기반 약화

□ 군산시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산업의 몰락과 위기지역 지정

- 군산국가산업단지의 주력산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 관련 산업과 한국지엠-타타대우상용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이 산업단지 및 군산-전라북도의 전체 제조업의 주력산업이었음
- 그로 인하여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군산은 물론 전라북도 전반에 걸친 제조업 및 경제침체를 주도하였음
- 군산시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역 내 산업 중 2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역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정착되어 왔고, 자동차산업 역시 지역 내 산업 중 30.4%로 이 둘의 산업이 중단되면서 54.4%라는 산업 위기 상황에 직면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그동안 연간 인건비 규모가 1,975억 원, 가계 소비지출 규모 연간 약 600여억 원, 지방세 납부 규모 연간 약 50억 원, 생산 유발 효과 2조 2,000억 원에 달하였음
- 한국지엠 군산공장도 군산 및 전라북도 전후방 산업 연계 시 근무 인원이 13,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군산공장의 연 경상비는 1,400억 원, 연간 지방세 규모는 46억 원 등 최대 가동 시기였던 2011년 군산시 수출의 52.5%, 전북 수출의 30.4%를 차지할 만큼 지역의 핵심 산업이었음
- 전북 수출의 효자산업인 자동차, 조선은 군산 수출의 42.7%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한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지역경제가 빠르게 고사하고 있음

<표 12> 산업·고용위기 전 한국GM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위상(수출액기준)

구 분(백만 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액	전 북 도	12,007	10,116	8,556	7,952	6,291
	군 산 시	7,031	5,052	3,799	3,647	2,011
업체별 수출액	한국GM(현산(현대))	3,519(212)	2,317(145)	1,113(82)	696(70)	404(34)
	선 박(현대重)	1,011(11척)	456(10척)	348(11척)	716(16척)	456(13척)
점유율	전라북도 비중 (GM/현대重)	37.7% (29.3/8.4)	27.4% (22.9/4.5)	17.0% (13.0/4.0)	17.7% (8.7/9.0)	13.6% (6.4/7.2)
	군산시 비중 (GM/현대重)	64.4% (50.0/14.4)	54.8% (45.8/9.0)	38.5% (29.3/9.2)	38.6% (19.0/19.6)	42.7% (20.0/22.7)

○ 타 지역의 경우 대부분 조선산업 밀집 지역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면, 군산시의 경우 조선을 시작으로, 완성차와 협력업체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까지 위기를 맞이하면서 고용은 물론 산업기반이 통째로 위기를 맞이한 상황임

□ 자동차·조선산업 등 주력산업 생산 감소로 지역경제 견인력 약화 : 2014년 대비 자동차 -48.4p(전국 -4.4p), 조선 -85.7p(전국 -29.9) 감소

○ 군산에서 자동차와 조선은 핵심 주력산업이었으나 산업위기 이후 위상 크게 약화

- 위기지역 지정 전 군산의 경우 자동차 입지계수(LQ)가 7.26, 조선은 2.84로 지역 내 비중과 입지계수를 동시에 고려할 때 군산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으나, 현재 자동차와 조선의 입지계수는 각각 3.2와 2.3으로 하락

〈표 13〉 군산시 주력산업 입지계수(LQ)

산업명	위기지역 지정 이전		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역내 비중	LQ	지역내 비중	LQ
자동차·조선·기계·화학·전자·금속·식품·의류·서비스	3.02	7.26	0.2	3.2
선박·조선·기계·화학·전자·금속·식품·의류·서비스	2.11	2.84	1.3	2.3

○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은 군산 경제를 지탱한 절대적 핵심전략 산업이었으나 산업위기로 전북 주력산업의 하락세 두드러짐

〈표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

지자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p)	증감
전국	109.9	100.0	88.8	68.2	63.2	80.0	-29.9
부산	54.0	100.0	138.6	62.5	70.9	59.0	5.0
대구	127.0	100.0	98.4	99.7	90.2	77.0	-50.0
인천	107.1	100.0	122.0	143.7	67.8	100.8	-6.3
울산	124.0	100.0	42.3	35.4	32.7	39.3	-84.7
충북	73.4	100.0	40.4	669.7	925.9	84.9	11.5
충남	-	100.0	82.6	111.2	56.7	17.8	-
전북	101.4	100.0	103.3	38.4	20.2	15.7	-85.7
전남	52.7	100.0	111.2	72.2	68.8	88.5	35.8
경남	117.1	100.0	100.6	76.9	66.3	101.7	-15.4

* 출처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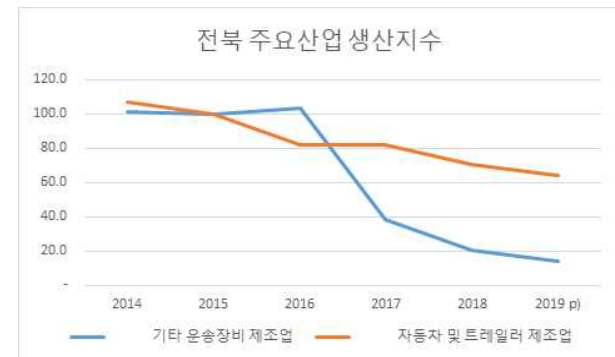
- 조선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전라북도 생산지수는 2014년 101.4을 기록한 이후, 2019년 기준 15.7로 85.7p 하락, 가장 높은 하락율을 보임

- 전라북도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생산지수의 경우 2014년 107.0을 기록한 이후, 2019년 기준 58.6으로 48.4p 하락하여 타 지역보다 높은 하락율을 보임

〈표 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

지자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p)	증감
전국	98.7	100.0	97.6	95.0	93.7	94.3	-4.4
부산	85.4	100.0	112.0	111.8	98.2	79.2	-6.2
대구	97.1	100.0	108.0	105.9	104.7	96.8	-0.3
인천	107.5	100.0	103.7	95.7	87.2	91.1	-16.4
광주	100.5	100.0	93.8	91.3	83.1	82.3	-18.2
대전	69.5	100.0	115.5	95.7	73.1	56.4	-13.1
울산	98.1	100.0	91.7	88.5	99.4	116.1	18.0
경기	98.9	100.0	100.5	99.8	97.6	97.9	-1.0
강원	103.2	100.0	86.9	83.8	83.9	80.5	-22.7
충북	80.3	100.0	107.0	103.7	120.3	127.8	47.5
충남	99.9	100.0	99.5	102.3	96.6	106.6	6.7
전북	107.0	100.0	82.1	81.9	70.6	58.6	-48.4
경북	103.7	100.0	100.9	98.5	103.1	106.9	3.2
경남	93.7	100.0	98.7	98.3	95.9	85.6	-8.1

* 출처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통계청)



□ 전북 자동차산업의 실태

○ 전북 자동차 생산 2012년-2019년 지속적 감소, 2012년의 17% 수준

- 2018년에 비해 2019년 자동차 생산은 -14.7%, 자동차수출액은 -12.9%,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8.6% 감소한 상태임
- 생산 업체별로 보면 한국GM 군산공장은 생산이 없으며, 현대자동차 뿐 아니라 타타대우상용차의 생산도 2012년의 50%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임

<표 16> 전북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추이

(단위: 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 대수 (단위: 대)	전북 276,480 [-19.2%] [6.1%]	217,018 (-21.5%) [4.8%]	162,420 (-25.2%) [3.6%]	143,984 (-11.4%) [3.2%]	99,196 (-31.1%) [2.3%]	101,293 (2.1%) [2.5%]	57,076 (-35.5%) [1.6%]	48,684 (-14.7%) [1.2%]
	전국 4,561,766 (-2.0%)	4,521,429 (-0.9%)	4,524,932 (0.1%)	4,555,957 (0.7%)	4,228,509 (-7.2%)	4,113,472 (-2.7%)	4,028,705 (-2.1%)	3,950,614 (-1.9%)
수출액 (자동차) (단위: 천\$)	전북 3,387,819 (-10.0%) [7.2%]	2,771,820 (-18.2%) [5.7%]	1,790,145 (-35.4%) [3.7%]	1,732,133 (-3.2%) [3.8%]	1,121,963 (-35.2%) [2.8%]	905,513 (-19.3%) [2.2%]	693,622 (-23.4%) [1.7%]	604,264 (-12.9%) [1.4%]
	전국 47,201,376 (4.2%)	48,634,808 (3.0%)	48,924,077 (0.6%)	45,794,008 (-6.4%)	40,637,547 (-11.3%)	41,689,671 (2.6%)	40,886,506 (-1.9%)	43,040,459 (5.3%)
수출액 (자동차 부품) (단위: 천\$)	전북 1,664,205 (6.8%) [6.5%]	1,224,331 (-26.4%) [4.5%]	773,491 (-36.8%) [2.8%]	574,455 (-25.7%) [2.1%]	565,426 (-1.6%) [2.2%]	604,135 (6.8%) [2.6%]	549,230 (-9.1%) [2.4%]	392,109 (-28.6%) [1.7%]
	전국 25,658,138 (11.1%)	27,358,757 (6.6%)	27,977,181 (2.3%)	26,806,629 (-4.2%)	25,565,280 (-4.6%)	23,134,211 (-9.5%)	23,118,748 (-0.1%)	22,536,337 (-2.5%)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 : 전년 대비 증감율, [] : 전북 비중

<표 17> 전북 자동차 생산 업체별 생산 및 수출현황

(단위: 대)

구분 (수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현대자동차 상용차	60,023 (28,214)	61,824 (25,001)	69,577 (31,700)	63,464 (32,748)	56,072 (27,652)	57,830 (26,860)	47,473 (20,733)	44,015 (14,956)
타타대우상용차	9,309 (4,099)	10,380 (4,458)	11,173 (3,678)	10,515 (3,836)	9,342 (1,218)	9,481 (1,723)	6,692 (1,672)	4,669 (1,523)
한국지엠(군산)	211,176 (180,122)	144,814 (110,879)	81,670 (41,428)	70,005 (34,164)	33,782 (12,129)	33,982 (10,600)	2,911 (2,937)	-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전북과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격차 확대로 산업 및 고용위기 지속

-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판매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전북의 생산은 2019년 중 -14.7%, 내수판매는 -21.6%, 수출은 -46.5%를 기록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산업 및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표 18>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17년 12월 (대)	증감률 (%)	2018년 12월 (대)	증감률 (%)	2019년 12월 (대)	증감률 (%)	
생산	국내	4,080,462	-3.5%▼	4,028,705	-1.3%▼	3,950,614	-1.9%▼
	해외	4,044,161	-13.1%▼	4,058,537	0.4%▲	3,883,331	-4.3%▼
내수 판매	1,560,202	-2.5%▼	1,552,346	-0.5%▼	1,539,776	-0.8%▼	
수출 판매	2,530,194	-3.5%▼	2,449,651	-3.2%▼	2,401,38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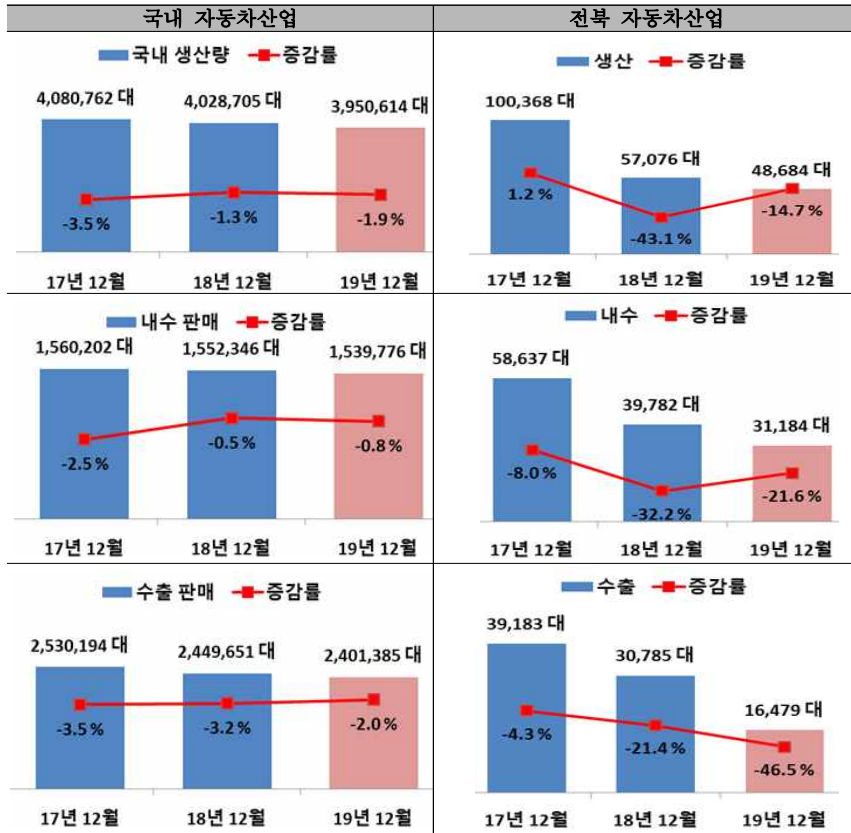
<표 19> 전북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17년 12월 (대)	증감률 (%)	2018년 12월 (대)	증감률 (%)	2019년 12월 (대)	증감률 (%)	
생산	승용	33,982	0.6%▲	2,911	-91.4%▼	0	-
	상용	66,386	1.5%▲	54,165	-18.4%▼	48,684	-10.1%▼
	소계	100,368	1.2%▲	57,076	-43.1%▼	48,684	-14.7%▼
내수	승용	18,654	-21.4%▼	5,806	-68.9%▼	0	-
	상용	39,983	-0.1%▼	33,976	-15.0%▼	31,184	-8.2%▼
	소계	58,637	-8.0%▼	39,782	-32.2%▼	31,184	-21.6%▼
수출	승용	10,600	-12.3%▼	8,380	-20.9%▼	0	-
	상용	28,583	-1.0%▼	22,405	-21.6%▼	16,479	-26.4%▼
	소계	39,183	-4.3%▼	30,785	-21.4%▼	16,479	-46.5%▼

○ 전북과 국내 자동차산업의 최근 동향을 비교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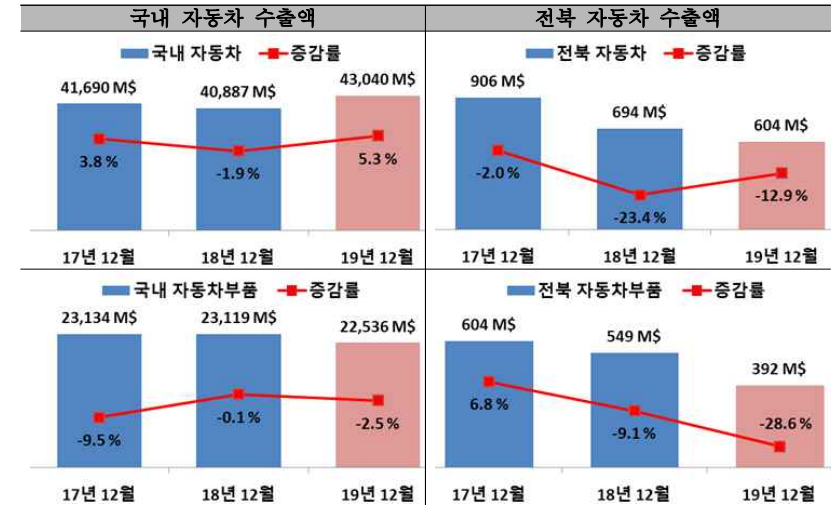
- 전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최근 3년 간 -3.5%, -1.3%, -1.9%로 소폭의 감소를 보인 반면 전북의 생산대수는 최근 2년 간 -43.1%, -14.7% 감소하여 생산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전국 자동차 내수판매도 최근 3년 간 -2.5%, -0.5%, 0.8%로 소폭의 감소를 보인 반면 전북의 내수판매는 각각 -0.8%, -32.2%, -21.6% 감소하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표 20> 국내/전북 자동차산업 생산·내수·수출 추이 비교



<표 21> 국내/전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추이 비교

구분	2017. 12. (백만달러)	증감률 (%)	2018. 12. (백만달러)	증감률 (%)	2019. 12. (백만달러)	증감률 (%)	
국내	자동차	41,690	3.8%▲	40,887	-1.9%▼	43,040	5.3%▲
	자동차부품	23,134	-9.5%▼	23,119	-0.1%▼	22,536	-2.5%▼
전북	자동차	906	-2.0%▼	694	-23.4%▼	604	-12.9%▼
	자동차부품	604	6.8%▲	549	-9.1%▼	392	-28.6%▼



○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급격한 감소추세로 전국과의 격차 확대

- 전국 자동차 수출은 최근 3년 간 3.8% 증가, -1.9% 감소, 5.3% 증가하여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 자동차 수출은 -2.0%, -23.4%, -12.9% 등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 자동차부품 수출은 최근 2년 간 -0.1%, 2.5% 감소하여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전라북도 자동차부품 수출은 -9.1%, -28.6% 등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 중, 2-3년 후 일자리 창출 본격화 전망

○ 사업개요

- 비전 :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본방향
 - ① (중견·벤처기업 모델) 중견·벤처기업 중심 밸류체인 형성
 - ② (투자촉진형 모델) 생산성 저조, 입지 확보 등에 애로를 겪는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시, 금융·R&D 등 패키지 지원
 - ③ (공정경제 모델)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원·하청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견·벤처기업 간 수평계열화·상생협력 모델
- Concept : (구)GM 군산공장을 비롯하여 공동화된 군산·새만금 산단 내 유희공장 등을 활용하여,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산업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19. 12월 ~ 2025년
- 입주 예정지 : (구)GM 군산공장을 비롯한 군산·새만금 산단 입주
- 추진방향 :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지방·중앙 정부가 패키지 지원
 -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일자리 개발
 - 단순 기업유치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사회연대를 통해 상생의 산업·노동·복지체계 구현

○ 추진실적

- 노사민정 복원과 공동선언문 발표('18.12.24.)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운영 (9회),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TF회의 (11회)
- BH, 중앙부처, 전북도, 유관기관 등 업무 간담회 (10회 이상)

- 노사민정 컨퍼런스 및 공론화 개최('19.06.19./07.24~25)
- 노사민정협의회 상생협약안 최종 의결 ('19.09.17.)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개최 ('19.10.24.)
- 노사민정 컨퍼런스 및 상생협의회 워크숍('19.11.19./12.12.)
- 명신 MOU체결 및 전기차 클러스터 합동기공식('20.01.09./01.16.)
- 전북군산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20.01.29.)

○ 사업계획

- (사업목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GM군산공장 부지/새만금 산단)
- (투자규모) 총 4,122억원
- (생산계획) 전기 승용·SUV,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등
- (추진동력)
 - 원하청관계 개선 및 중소, 중견기업 간 수평계열화 · 공정경제 모델
 - 기존 자동차부품 및 협력업체의 전기차 신규투자로 시너지효과 기대
 -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형 일자리 타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 핵심 상생협약안

- (노사상생) 근로시간 계좌제 및 우리사주제 등 선진적 임금체계 도입, 갈등 발생 시 상생협의회 조정안 수용 등
- (원하청 상생) 공동교섭을 통한 적정임금 설정, 공동복지기금 조성, 수평계열화를 통한 밸류체인 형성, 하청업체와 수익공유(5:5) 등
- (지역상생) 역대 부품 10% 이상 의무구매, 지역인재 우선채용,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한 전기차 인력공급, JIAT R&D지원 등

□ 전북 조선산업의 실태

○ 군산조선소 기본현황

- 위치 : 군산시 제2국가산업단지 내 (2010. 3월 착공)
- 부지면적 : 총 1,810천㎡ (548천평) / 공장 5개동 191천㎡(57천평)
- 시설규모 : 도크 1개, 폴리아트크레인 1,650톤(세계 최대)
- 투자금액 : 약 1조 4,000억원 (협력업체 5,000억원 별도)
- 전북도 및 군산시 지원 : 470억원 (투자보조금 200억원 포함 각종 인프라 구축 등)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건조 실적 : 총 70척, 약 6조 5,000억원

구분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조 (척수)	7척	11척	10척	13척	16척	13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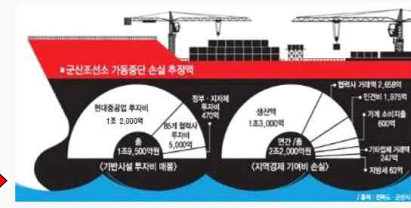
-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으로 생산 1조 3천억, 수출 8.5백억원 등의 경제적 손실과 군산조선소 5천명의 일자리 감소 초래
- 또한 군산조선소 85개 협력업체의 5,250명 중 95%가 일자리를 잃고 현재 단 230명만 남아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시설 및 생산현황

- 위치/준공 :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 '10.3.31 준공('08년 착공)
- 부지면적 : 총 181만㎡(548천평) / 공장 5개동 191천㎡(57천평)
- 시설현황 : 도크 1개(130만톤), 폴리아트 크레인 1,650톤(세계최대규모)
- 생산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조척수	11척	10척	13척	16척	13척
강재처리	39만톤	28만톤	42만톤	37만톤	38만톤
매출규모	1조1,300억	8,600억	8,301억	1조1,418억	1조2,972억

□ 가동중단('17.7) 이후 지역경제 어려움 가중



<표 22>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일자리 감소

□ (가정업체) 전국2,604개사 대비 62개사(2.3%), 전국 고용인원 89,000명 대비 723명(0.8%)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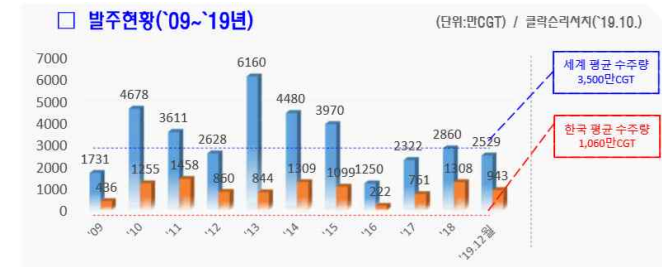
□ (협력업체) 현대중공업 불려제작 및 조립 협력업체 85개사 → 가동중단('17.7.1) 후 18개사 영업중

(기준: '19. 9월 현재)

구분	업체수	고용인원	주생산품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전	85개사 (사내39, 1차8, 2차38)	5,250	사내인력파견39, 블록37, 도장5, 소조립3, 의장1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후	18개사 (1차6, 2차16)	230 (△95%)	블록14, 도장2, 소조립1, 의장1

○ 세계 조선경기는 회복 중

<표 23> 세계 조선업 발주 현황 및 전망



<표 24> 국내 조선업 수주량 현황 및 전망



(단위:만CGT)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수주량	1,030	1,040	1,170	1,310	1,260	1,170	980	1,160	1,340	1,380
건조량	860	1,130	1,480	1,090	1,200	1,280	1,240	1,110	1,020	1,190
수주잔량	2,360	2,260	1,950	2,180	2,230	2,120	1,860	1,910	2,220	2,410

○ **군산조선소 재가동 요청, 제반 정책지원에도 군산 조선업 경기회복 불투명**

- 조선업 경기가 호전되고, 탈황규제인 'IMO 2020'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조선이 강점을 가진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 강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조선소 사후처리 방침(재가동)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 현대중공업은 싱가포르 15,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1척 수주('19. 10. 10. 언론보도), 해외시장 LNG선 60척부터 최대 120척 발주 예상('20.1.3.언론보도), 카타르 프로젝트 최대 100척 2020년 상반기 40척 발주 전망, 러시아 노바텍의 아틱 LNG 9척,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LNG 12척 발주, 모잠비크 LNG 15척 발주가 예상되며, 세계적으로 원유운반선 62척이 발주 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60%를 점유하는 등 수주 증가 예상

<표 25> 군산조선소 재가동 노력 및 조선산업 지원실적

◇ **군산조선소 재가동 노력**

-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 반영('17. 4월)
- 現重 新조선박 물량 배정 및 군산조선소 정상화(재가동) 권의 : 177회
- ※ 현중 경영진 면담 : '18. 11. 22. 정무부지사 ↔ 가삼현 사장, '19. 3. 1. 지사 ↔ 권오광 부회장, '19. 4. 3. / 7. 5. 정무부지사 ↔ 노진을 부사장

◇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 지원**

- 조선업체 자금 지원 : 102건 191.1억원
- <'16~'17년 특별자금 : 41건 88.9억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 : 29건, 55.4억원
 - ▶ 기존대출 거지기간 연장('16~'17년) : 12건, 33.5억원
- <'18년 특별자금 : 50건 55.7억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 6건, 15억원
 - ▶ 기존대출 거지기간 연장('18.3~'11월) : 7건, 11.1억원
 - ▶ 특례보증 연계 긴급경영안정자금 : 37건, 29.6억원
- 조선업체 R&D 및 기업지원 : 8건, 287.7억원
 - ▶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계속) : 30억원
 - ▶ 컨테이너형태 모듈화 스크러버 시스템 기술개발 : 18억원
 - ▶ 조선산업 기자재 부품기업 위기극복 R&D 지원 : 20억원
 - ▶ 해양철의기자재 육상지원사업 : 108억원
 - ▶ 조선기자재업체 위기극복 기술개발사업 : 27억원
 - ▶ 조선기자재업체 스마트공장 확산보급 지원사업 : 16억원
 - ▶ 중소형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 8.7억원
 - ▶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 10억원
 - ▶ 조선협력업체 도의 물품수송 물류비 지원(계속) : 50억원
- 기술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인프라 구축 : 2건 255억원
 - ▶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계속) : 187억원
 - ▶ 조선해양기자재 영지니아항 지원기반 구축(계속) : 68억원

- 이에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수주물량 일부를 군산에 배정하여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라는 요청에 대해 아직 확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

○ **조선경기 회복으로 전남, 경남 등 타 지역은 회복세, 전북 하락세 지속**

- 조선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회복에 따라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군산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조선업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경남과 전남의 경우 '18년 저점을 지나 '19년에 회복세(전남 '18년 68.8 → '19년 88.5, 경남 '18년 66.3 → '19년 101.7)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은 여전히 하락세 진행 중 ('18년 20.2 → '19년 15.7)

<표 2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

지자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p)	증감
전국	109.9	100.0	88.8	68.2	63.2	80.0	-29.9
전북	101.4	100.0	103.3	38.4	20.2	15.7	-85.7
전남	52.7	100.0	111.2	72.2	68.8	88.5	35.8
경남	117.1	100.0	100.6	76.9	66.3	101.7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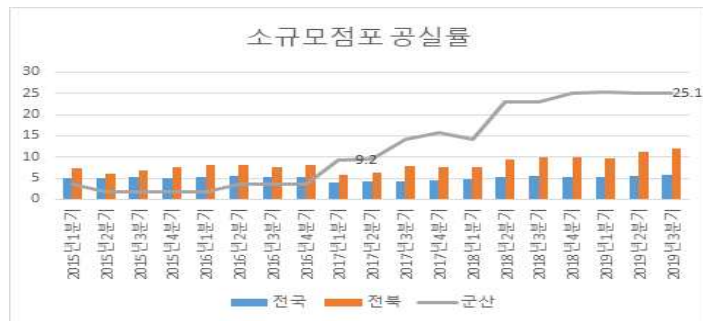
* 출처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통계청)

4. 지역상권의 몰락 및 인구유출 지속으로 지역사회 피해

□ 군산 소규모 점포 공실률 '19년 3분기 25.1%(전국평균 5.9%), 전국평균보다 낮았던 '16년 4분기 3.5%에 비해 7배 이상 증가

〈표 27〉 군산시 점포 공실률 변동 추이

분기	소규모 점포			중대형 점포		
	전국	전북	군산	전국	전북	군산
2015년1분기	5.1	7.3	3.5	10.5	16.9	16.2
2015년2분기	4.9	6.0	1.8	10.8	17.2	15.5
2015년3분기	5.2	6.7	1.8	10.6	16.5	15.5
2015년4분기	5.0	7.5	1.8	10.3	17.1	14.8
2016년1분기	5.3	8.2	1.8	10.6	17.5	15.1
2016년2분기	5.4	8.2	3.5	10.5	17.7	15.9
2016년3분기	5.2	7.7	3.5	10.7	19.8	15.0
2016년4분기	5.3	8.1	3.5	10.6	19.2	12.7
2017년1분기	3.9	5.7	9.2	9.5	12.7	11.5
2017년2분기	4.1	6.3	9.6	9.6	13.7	11.8
2017년3분기	4.1	7.8	14.2	9.8	13.9	11.8
2017년4분기	4.4	7.6	15.7	9.7	13.4	12.8
2018년1분기	4.7	7.6	14.2	10.4	14.8	14.7
2018년2분기	5.2	9.4	22.9	10.7	16.2	16.4
2018년3분기	5.6	9.9	22.9	10.6	15.1	14.3
2018년4분기	5.3	9.8	25.1	10.8	15.2	13.5
2019년1분기	5.3	9.6	25.2	11.3	17.0	14.0
2019년2분기	5.5	11.1	25.1	11.5	17.1	14.7
2019년3분기	5.9	12.1	25.1	11.5	17.3	14.5



* 출처: 통계청

□ 군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2019년 96.5로 하락, 자산가치 하락, 지역 소비에 부정적 영향



* 출처: 국민은행(기준: 2019.1=100)

□ 인구유출 가속화로 지역경제 악순환 : 2015년 이후 8,000명 이상 감소, 2020년 1월 인구 27만명 붕괴

- 지역의 급격한 산업위기는 협력업체 도산, 소비심리 위축, 소상공인 폐업, 자산가치 하락, 인력 유출, 투자 여건 악화 등 악순환이 이어짐
- 군산시 인구는 2015년부터 4년간 8,267명이 감소하였으며, '18년 2,070명, '19년 1,997명이 순유출되어 '15년 상반기 543명 유출된 것과 비교할 때 인구유출 가속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



제3장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원지원제도 운영성과

제1절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총괄

〈표 28〉 군산시 인구이동 추이

분기	전북	군산
2015 1/4	-1,787	-45
2015 2/4	-638	-39
2015 3/4	-791	-150
2015 4/4	386	-309
2016 1/4	-3,014	-219
2016 2/4	-934	-167
2016 3/4	-1,122	-434
2016 4/4	651	-475
2017 1/4	-3,345	-892
2017 2/4	-1,808	-527
2017 3/4	-2,001	-459
2017 4/4	-52	-653
2018 1/4	-5,194	-1,000
2018 2/4	-2,625	-168
2018 3/4	-3,346	-512
2018 4/4	-2,608	-390
2019 1/4	-4,878	-555
2019 2/4	-2,755	-334
2019 3/4	-2,632	-532
2019 4/4	-2,483	-576

* 출처: 통계청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주요내용

- ▶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직업훈련, 고보·산재보험료/장애인 부담금 납부 유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등
- ▶ **노동자 지원:** 훈련연장급여,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 취업촉진수당 등

1. 사업주 지원제도

- ①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휴업·휴직 지원수준 인상·한도 상향**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
 - * 휴업·휴직 수당 2/3(1일 한도 6만원) → 9/10(7만원)
 - * 무급·휴직 조건: 3개월 이상 → 30일 이상
- ②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 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240% → 300%
- ③ **(고용·산재보험료 등)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 *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 1년 간 임금(통상임금)의 1/2 지원(대규모기업은 1/3)
- 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1인당 연 900만원 → 1,400만원)

- ⑥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 지원

2. 노동자 지원제도

- ① (훈련연장급여 지원)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 지원
- ②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용자 한도 확대(1인당 1,000만원→2,000만원)
- ③ (생활안정자금 용자) 노동자에게 의료비,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 자금 용자 소득 요건 완화 및 용자 한도 확대(금리 연 2.5%)
 - *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0만원→대학생 자녀 포함 700만원
 - *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 ④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성공패키지 II 유형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 및 II 유형 2단계 훈련참여 시 자부담(5~70%) 면제
- ⑤ (직업훈련)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하여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
 - * 1인당 지원한도 상향 200만원 → 300만원
- ⑥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구직활동 적극 지원
 - * 직업능력개발 수당(1일 5,800원→7,530원), 광역 구직활동비(50km→25km), 이주비

제2절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운영성과

1.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성과

- 2019년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2,745백만원 국비 지원 (단위: 천원)

과정명	수행기관	국비 지원액	비고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캠틱종합기술원	2,380,000	취업, 교육훈련 창업, 컨설팅
혁신동력창출 뉴군산 프로젝트	군산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150,000	취업지원
군산산업단지 근로자숙소지원	군산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110,000	숙소지원
군산형 자동차 대체부품 일자리 생태계 조성사업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105,000	기업지원
합계		2,745,000	

- 2018년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2,328백만원 국비 지원 (단위: 천원)

과정명	수행기관	국비 지원액	비고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캠틱종합기술원	1,798,300	취업, 교육훈련 창업, 컨설팅
센스 네트워크기반 IoT융합개발자과정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100,000	취업지원
군산국가산업단지 근로자숙소지원	군산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110,000	숙소지원
4차산업과 연계한 드론전문가 과정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120,000	취업지원
건설기계 재취업 교육과정	건설기계부품연구원	200,000	취업지원
합계		2,328,300	

2. 사업주 지원성과

- 고용유지지원금은 '19년 5,767백만원, 전년 대비 2,740백만원(90.5%) 증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18.4.5. ~	증감률
군 산	5,767	3,027	90.5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은 '19년 2,324백만원, 전년 대비 549백만원(30.9%) 증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18.4.5. ~	증감률
군 산	2,324	1,775	30.9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19년 1,606백만원 지원 (19년 신설)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18.4.5. ~	증감률
군 산	1,606	-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9년 7,598백만원, 전년 대비 4,633백만원(156.3%) 증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18.6.1. ~	증감률
군 산	7,598	2,965	156.3

- 고용촉진장려금은 '19년 1,326백만원, 전년 대비 292백만원(18%) 감소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18.4.5. ~	증감률
군 산	1,326	1,618	△18

3. 근로자 지원성과

- 훈련연장급여지원은 '19년 107백만원, 전년 대비 99백만원(1,237%) 증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18.8.31. ~	증감률
군 산	107	8	1,237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용자)는 '19년 483백만원, 전년 대비 133백만원(38%) 증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18.6.1. ~	증감률
군 산	483	350	38

- 생활안정자금 용자는 '19년 1,157백만원, 전년 대비 316백만원(37.6%) 증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18.4.5. ~	증감률
군 산	1,157	841	37.6

- 취업성공패키지는 '19년 3,151백만원, 전년 대비 1,880백만원(147.9%) 증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18.4.5. ~	증감률
군 산	3,151	1,271	147.9

- 직업훈련(재직자 능력개발지원)은 '19년 1,188백만원, 전년 대비 658백만원 (124.1%) 증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18.5.1. ~	증감률
군 산	1,188	530	124.1

-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18.4.5. ~	증감률
군 산	4,426	1,098	303.1

참고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원 현황(18.4.5.~19.12월 누적)

회계	사업명	적용 시점 (18년)	지원내용				비고
			사업 장수 (개)	지원 건수 (건)	지원 인원 (명)	지원 금액 (백만원)	
합 계			4,976	46,342	55,898	57,299	
고보	취업촉진수당	4.5			22	15	
고보	훈련연장급여	8.31			14	115	
고보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용자)	6.1	-	161	161	833	
근복	생활안정자금(용자)	4.5	189	320	320	1,998	
일반	취업성공패키지	4.5	0	16,852	4,116	4,422	
고보	재직자 능력개발지원	5.1	901	4,512	2,319	1,718	
고보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4.5	-	4,144	4,144	5,524	
고보	고용유지지원금	4.5	90	336	5,030	8,794	
고보	사업주직업훈련지원	4.5	1,097	12,766	26,468	4,099	
고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	342	2,470	2,230	10,563	
고보	고용촉진장려금	4.5	468	751	622	2,944	
일반	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	4.5	71	0	854	6,270	
고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4.5	0	5	0	4,603	
고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5	53	111	208	1,606	19년 신규 사업
일반	청년센터 운영	4.5				2,607	
비 예 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4.5	312			643	
	고용산재보험료 채납처분 유예	4.5	110			545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4.5					
	고용보험 사업주 과태료 면제	4.5	1,343	3,914	9,390	0	

참고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원 현황(18.4.5.~18.12월 누적)

회계	사업명	적용 시점 (18년)	지원내용				비고
			사업 장수 (개)	지원 건수 (건)	지원 인원 (명)	지원 금액 (백만원)	
합 계			2,467	19,137	24,959	20,870	
고보	취업촉진수당	4.5			7	3	
고보	훈련연장급여	8.31			3	8	
고보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용자)	6.1	-	85	85	350	
근복	생활안정자금(용자)	4.5	89	136	136	841	
일반	취업성공패키지	4.5	0	5,341	1,887	1,271	
고보	재직자 능력개발지원	5.1	376	1,298	840	530	
고보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4.5	-	1,552	1,552	1,098	
고보	고용유지지원금	4.5	42	112	3,005	3,027	
고보	사업주직업훈련지원	4.5	648	8,042	13,315	1,775	
고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	205	1,129	886	2,965	
고보	고용촉진장려금	4.5	254	411	338	1,618	
일반	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	4.5	71	0	534	2,098	
고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4.5		3		2,118	
고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5					19년 신규 사업
일반	청년센터 운영	4.5				2,607	
비 예 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4.5	156			235	
	고용산재보험료 채납처분 유예	4.5	88			326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4.5					
	고용보험 사업주 과태료 면제	4.5	538	1,028	2,371		

참고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원 현황(19년도)

회계	사업명	적용 시점 (18년)	지원내용				비고
			사업 장수 (개)	지원 건수 (건)	지원 인원 (명)	지원 금액 (백만원)	
합 계			2,509	27,205	30,939	36,429	
고보	취업촉진수당	4.5			15	12	
고보	훈련연장급여	8.31			11	107	
고보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용자)	6.1		76	76	483	
근복	생활안정자금(용자)	4.5	100	184	184	1,157	
일반	취업성공패키지	4.5	0	11,511	2,229	3,151	
고보	재직자 능력개발지원	5.1	525	3,214	1,479	1,188	
고보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4.5		2,592	2,592	4,426	
고보	고용유지지원금	4.5	48	224	2,025	5,767	
고보	사업주직업훈련지원	4.5	449	4,724	13,153	2,324	
고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	137	1,341	1,344	7,598	
고보	고용촉진장려금	4.5	214	340	284	1,326	
일반	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	4.5	0	0	320	4,172	
고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4.5		2		2,485	
고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5	53	111	208	1,606	19년 신규 사업
일반	청년센터 운영	4.5				0	
비 예 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4.5	156			408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4.5	22			219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4.5					
	고용보험 사업주 과태료 면제	4.5	805	2,886	7,019		

4. 「군산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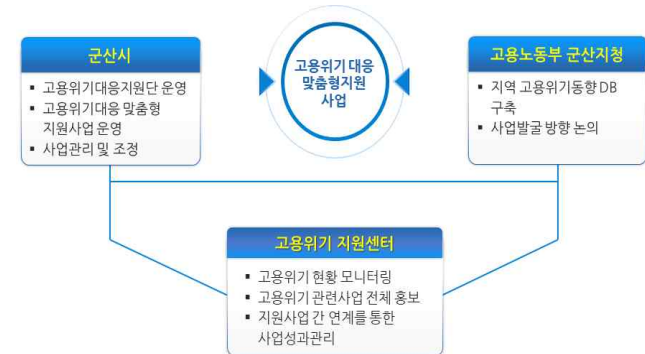
1) 사업목적 및 추진실적

□ 사업목적 : 군산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군산 고용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대상자 통합프로그램 지원
- 군산 고용위기지역 퇴직자/구직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 군산 고용위기지역 극복 일취월장 창업 지원
- 군산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지원

□ 사업추진 방법

- 수요자 맞춤형 고용 안정화를 위한 사업 설계 및 운영
 - 사업주, 퇴직자, 서비스이용자 심층상담을 통한 요구 분석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재취업, 직업훈련, 창업 등 대상자별 맞춤형 운영
 - 심리적 안정을 기반으로 재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센터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지역 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극대화
 - 기존 사업과 중복배제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추진 실적 : 1,277명 취업

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추진현황		
		인원	취업	인원	취업		
군산 고용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대상자 통합 프로그램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1,500	150	3,764	909		
	· 마음관리 프로그램	900	-	1,485			
	· 일자리 한마당	80개사	100	151개사		146	
군산고용위기지역 퇴직/구직자 직업 훈련 및 재취업 지원사업		교육	수료	취업	교육	수료	취업
	합계	210	166	103	199	175	104
	· 단기 직업 훈련	120	96	48	110	96	46
	· 장기 전문 직업 훈련	20	14	10	20	17	14
	· 신산업 전문 직업 훈련	70	56	45	69	62	44
군산고용위기지역 극복 일취월장 창업 지원사업	· 창업기초 및 심화교육	23명, 19명 수료		25명, 24명 수료		창업16	
	· 창업/재창업지원	창업지원 11개사		창업지원 15개사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40개사, 160건		40개사, 160건			
	· 기업성장지원	12개사	36명	12개사	52명		

□ 사업추진 성과

-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서비스 활성화 : 서비스 참여자 3,032명
 - 프로그램 간 연계성과, 계층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강화
 - 지역 내 유관기관(대학, 직업훈련기관, 기업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 강화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취업지원 성과 도출 : 취업자 1,227명
 -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 및 일자리 한마당을 통한 채용연계 강화
- 신재생에너지 및 특화 산업분야 직업훈련과정 운영 및 채용연계
 - 총 8개 과정, 175명 양성, 취업 104명(취업률 59.4%)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지상조업사, 특장차, 경력단절 여성 특화 등
- 창업교육 및 지원을 통한 사업화 : 창업 16명
 - 초기사업비 및 창업성공 축하금 등 지원을 통한 성공창업 지원
-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40개사
 -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4회/기업)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수요 맞춤형 기업성장지원 : 12개사

- 기업의 공정개선,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인력채용 효과)

□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내용	목표	추진실적
군산 고용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대상자 통합 프로그램 지원	· 취업의욕고취 및 구직기술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원 : 1,500명 - 취업 : 150명	- 지원 : 3,764명 - 취업 : 909명
	· 마음관리역량 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지원	- 지원 : 900명	- 지원 : 1,485명
	· 군산 고용위기극복 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	- 기업발굴 80개사 - 취업 : 100명	- 기업발굴 151개사 - 취업 : 146명
군산 고용위기지역 퇴직/구직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사업	· 단기 직업 훈련교육/취업연계	- 교육 : 120명 - 수료 : 96명 - 취업 : 48명	- 교육 : 110명 - 수료 : 96명 - 취업 : 46명
	· 장기 전문 직업 훈련교육/취업연계	- 교육 : 20명 - 수료 : 14명 - 취업 : 10명	- 교육 : 20명 - 수료 : 17명 - 취업 : 14명
	· 신산업 전문 직업 훈련교육/취업연계	- 교육 : 70명 - 수료 : 56명 - 취업 : 45명	- 교육 : 69명 - 수료 : 62명 - 취업 : 44명
	· 직업훈련교육 편의 서비스지원	- 10개월	- 10개월
	· 창업기초 및 심화교육	- 교육 : 23명 - 수료 : 19명	- 교육 : 25명 - 수료 : 24명
군산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40개사 - 160건	- 40개사 - 160건
	·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수요 맞춤형 기업성장지원	- 12개사 - 신규고용 36명	- 12개사 - 신규고용 52명

○ 군산 고용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대상자 통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내용	세부내용	목표	실적
■ 취업의욕고취 및 구직기술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재취업 성공 맞춤형 입사지원 : 500명	· 지원 : 1,500명 · 알선 : 1,000건 · 취업연계 : 150명	· 지원 : 3,764명 · 알선 : 2,247건 · 취업연계 : 909명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1,000명		
	· 취업알선·취업활동 지원 : 1,000건		
■ 마음관리역량 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지원	· 마음관리 프로그램 : 500명	· 참여 : 900명	· 참여 : 1,485명
	·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 300명		
	· 위기가정 회복 프로그램 : 100명		
■ 군산 고용위기극복 희망찾기 일자리한마당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3회, 40개사	· 80개사 · 취업연계 100명	· 151개사 · 취업연계 146명
	· 기업별 맞춤형 매칭데이 : 9회, 40개사		

○ 군산 고용위기지역 퇴직/구직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사업

- 총 199명 훈련, 175명 수료(수료율 87.9%), 104명 취업(취업율 59.4%)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실적
■ 단기 직업훈련 교육/취업연계	· 한식조리사 자격취득과정	· 교육/수료/취업 20명/16명/8명	· 교육/수료/취업 20명/20명/10명
	· 유휴보육교사재취업과정	· 교육/수료/취업 40명/32명/16명	· 교육/수료/취업 40명/39명/18명
	· 자동차정비인력양성과정	· 교육/수료/취업 20명/16명/8명	· 교육/수료/취업 15명/10명/6명
	· 전기차 2차전지 자동화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과정	· 교육/수료/취업 20명/16명/8명	· 교육/수료/취업 20명/16명/8명
	· 특장차취업전문과정	· 교육/수료/취업 20명/16명/8명	· 교육/수료/취업 15명/11명/4명
■ 장기 전문 직업훈련 교육/취업연계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능사	· 교육/수료/취업 20명/14명/10명	· 교육/수료/취업 20명/17명/14명
■ 신산업 전문 직업훈련 교육/취업연계	· 위그선 해양레저사 과정	· 교육/수료/취업 10명/8명/7명	· 교육/수료/취업 10명/9명/6명
	· 항공지상조업사 과정	· 교육/수료/취업 60명/48명/38명	· 교육/수료/취업 59명/53명/38명
■ 직업훈련교육 편의 서비스 지원	· 교육이동차량 편의서비스 제공	· 10개월	· 10개월

○ 군산 고용위기지역 창업(재창업) 지원사업

- 창업 및 재창업 : 16명, 간접 고용창출 : 6명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실적
■ 고용위기지역 극복 일취월장 창업지원사업	·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 교육: 23명 · 수료: 19명 · 창업: 11명	· 교육: 25명 · 수료: 24명 · 창업: 16명

○ 군산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 총 40개사 컨설팅 지원 및 12개사 기업성장 지원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실적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40개사 · 160건	· 40개사 · 160건
■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기업성장 지원	· 고용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기업성장 지원	· 12개사 · 고용창출 36명	· 12개사 · 고용창출 52명

2) 「군산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성과 분석

[사업목표 달성도]

○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 프로그램 평균 달성도는 184% 이상을 달성함.

단 직업훈련프로그램 훈련인원에서 미달(11명, -5%)하였으나, 평균달성도는 111%

- 총 취업자 1,227명으로 목표대비 취업자 827명을 초과한 319% 이상을 달성함

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달성		달성도(%)		
		인원	취업	인원	취업	인원		
■ 군산 고용위기지역 퇴직자(구직자) 통합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취업지원 프로그램	1,500	250	3,764	1,055	251	422	
	· 마을관리프로그램	900		1,485		165		
	· 일자리한마당	80개사		151개사		189		
	· 합계	2,100		5,250		405		
■ 군산 고용위기지역 실직(퇴직)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사업	· 단기 직업 훈련	120	96	48	110	96	46	111
	· 장기 전문 직업 훈련	20	14	10	20	17	14	
	· 신산업 전문 직업 훈련	70	56	45	69	62	44	
	· 합계	210	166	103	199	175	104	
	· 평균							
■ 군산 고용위기지역 극복 일취월장 창업지원사업	· 창업교육	23명, 19명 수료		25명, 24명 수료		145		
	· 창업/재창업지원	창업지원 11명	11	창업지원 15명	16			
■ 군산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40개사	160건	40개사	160건	100		
	· 수요맞춤형 기업성장지원	12개사	36	12개사	52	144		

- 센터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실직자 및 구직자가 센터사업을 경험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함

- 센터상담 이용자현황

: 실인원 3,032명, 상담현황 15,528건(방문 43.9%, 유선 56.1%)

합계	초기 상담	알선 상담	전직 지원	정부 지원	교육비	직업 훈련	기업 지원	창업 컨설팅	주거비 상담	EAP
15,528	5,790	3,817	2,968	205	124	683	899	366	6	670

[통합프로그램 운영 성과]

○ 고용활성화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 지원

- 취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재취업 성공 맞춤형 지원 (전직프로그램, 취업특강, 취업캠프 등)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모의면접, 입사서류 컨설팅, 면접비 지원 등)
- 직무별 및 계층별 프로그램 (문서실무, 설계, 생산물류 등)
- 취업자 조기 적극 관리 및 사후관리 (취업자 고용유지를 위한 근무환경 관리)

- 마음관리역량강화 및 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 지원

- 마음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집단상담, 힐링프로그램 운영)
- 위기가정 회복 프로그램 (가족단위 프로그램 지원)
- ※ 심리상담(한국EAP) 및 전직프로그램(노사발전재단)은 고용복지센터 상시운영 중

- 고용위기극복 희망찾기 일자리한마당 운영

- 구인구직만남의 날 및 기업별 맞춤형 매칭데이
- 구인수요에 맞춘 윈스톱 채용 대행 서비스 (모집-전형-선발)
- 입사지원 전 미스매칭 최소화를 위한 기업체 설명회 및 기업탐방 진행

○ 통합프로그램 운영 성과

사업내용	세부내용	목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의욕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재취업 성공 맞춤형 입사지원 : 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 1,500명 · 알선 : 1,000건 · 취업연계 : 1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 3,764명 · 알선 : 2,247건 · 취업연계 : 909명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1,000명		
	· 취업알선·취업활동 지원 : 1,00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관리역량 강화 및 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 지원 	· 마음관리 프로그램 : 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 9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 1,485명
	·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 300명		
	· 위기가정 회복 프로그램 :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 고용위기극복 희망찾기 일자리한마당 	· 구인구직만남의 날 : 3회, 4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기업발굴 : 80개사 · 취업연계: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기업발굴 : 151개사 · 취업연계:146명
	· 기업별맞춤형 매칭데이 :9회, 40개사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성과]

○ 직업훈련과정 목표 달성현황

- 훈련인원 목표 달성도가 94.8%이나 수료인원의 목표 달성도 105.4%, 취업목표달성도 101.0% 로 수료 및 취업인원 목표 달성

과정명	구분	계획(명)	추진실적(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고
총괄	훈련인원	210	199	94.8	
	수료인원	166	175	105.4	
	취업인원	103	104	101.0	
한식조리사 자격취득	훈련인원	20	20	100.0	
	수료인원	16	20	125.0	
	취업인원	8	10	125.0	
유희보육교사 재취업	훈련인원	40	40	100.0	
	수료인원	32	39	121.9	
	취업인원	16	18	112.5	
자동차정비 인력양성	훈련인원	20	15	75.0	
	수료인원	16	10	62.5	
	취업인원	8	6	75.0	
전기차2차전지 자동화장비	훈련인원	20	20	100.0	
	수료인원	16	16	100.0	
	취업인원	8	8	100.0	
특장차취업전문	훈련인원	20	15	75.0	
	수료인원	16	11	68.8	
	취업인원	8	4	50.0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능사	훈련인원	20	20	100.0	
	수료인원	14	17	121.4	
	취업인원	10	14	140.0	
위그선 해양레저사	훈련인원	10	10	100.0	
	수료인원	8	9	112.5	
	취업인원	7	6	85.7	
항공지상조업사	훈련인원	60	59	98.3	
	수료인원	48	53	110.4	
	취업인원	38	38	100.0	

- 퇴직자/구직자의 수요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특히 기업수요 맞춤형 특화훈련과정(전기차2차전지, 위그선해양레저사, 항공지상조업사)을 개설하여 청년층 및 퇴직자에게 새로운 분야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지상조업사의 경우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체 및 훈련생의 만족도가 높아 19년도에 3회차 과정을 운영 함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성과]

○ 경력단절 여성의 훈련프로그램 활성화

- 총괄 : 훈련과정 2개, 참여인원 60명, 수료인원 59명, 취업인원 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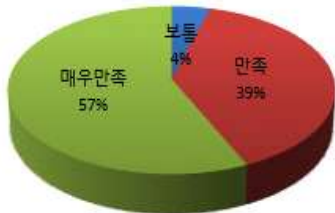
과정명	교육인원		수료인원		자격증취득		취업인원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	20	20	16	20	-	15	8	10
유휴보육교사 재취업과정	40	40	32	39	해당없음		16	18
합 계	60	60	48	59	15		24	28

-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훈련생 관리 및 취업처 발굴 강화

- 훈련생 개별 훈련상담 및 취업상담 진행
- 취업지원 전담자 지정 및 취업알선 수시 지원
- 훈련생 개별 이력서컨설팅 및 동행면접 지원
- 훈련생 간담회 : 각 과정별 1회, 훈련생 중간평가, 구직활동/취업준비도 등 파악

- 여성미니취업박람회 운영 : 총 10개 업체 참여, 100명 구직자 참여

- 훈련과정의 만족도 : 전체 만족도는 96%를 나타냄



[훈련과정의 전체 만족도]



[훈련내용의 이해도]

- 관련 사진



[한식조리기능사자격취득과정]



[유휴보육교사재취업]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성과]

○ 기업수요맞춤형 단기/장기 훈련프로그램 운영

- 총괄 : 훈련과정 6개, 참여인원 139명, 수료인원 116명, 취업인원 76명

과정명	교육인원		수료인원		자격증취득		취업인원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자동차정비	20	15	16	10	8	8	8	6
전기차2차전지 자동차장비	20	20	16	16	해당사항없음		8	8
특장차취업전문	20	15	16	11	해당사항없음		8	4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20	20	14	17	10	10	10	14
위그션해양레저사	10	10	8	9	해당사항없음		7	6
항공지상조업사	60	59	48	53	해당사항없음		38	38
합 계	150	139	118	116	18		79	76

- 수요 기업의 적극적인 훈련프로그램 참여

- 훈련생 선발과정에 기업체 담당자 면접관 참여(위그션해양레저사, 항공지상조업사)
- 훈련생 훈련프로그램에 기업체 재직자 강사 참여
- 훈련과정에 기업체 훈련장비 활용 및 기업체 현장 실습
- 훈련생 평가시 기업체 담당자 참여(채용예정자 선정시 반영)

-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의 통합프로그램을 연계한 과정운영 및 취업연계 활성화

- 훈련과정 중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훈련 조기적응 및 마음관리에 도움 : 과정별 4시간 운영
- 훈련종료 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지원 : 입사지원서컨설팅, 기업탐방, 동행면접, 일자리 매칭데이 등

- 훈련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계사례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성과]

○ 현장지향적 전문교육과정 운영

- 과정구성 : 소양교육+이론교육+실습교육(직무실습+산업체 현장실습)
- 전문교육과정을 사업계획서 일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운영
- 교육성과 검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 진행
- 훈련생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장려

○ 특화훈련분야 자원동원

- 훈련기관별 특화 훈련장비 활용 교육
- 자체강사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및 훈련생 관리
- 자체 훈련생 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

○ 취업전담 및 특화분야 전문강사 운영

- 특화과정(전기차2차전지자동화장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위그션해양레저사 등) 운영 전문강사 및 교육장비 보유
- 취업연계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
- 지역내 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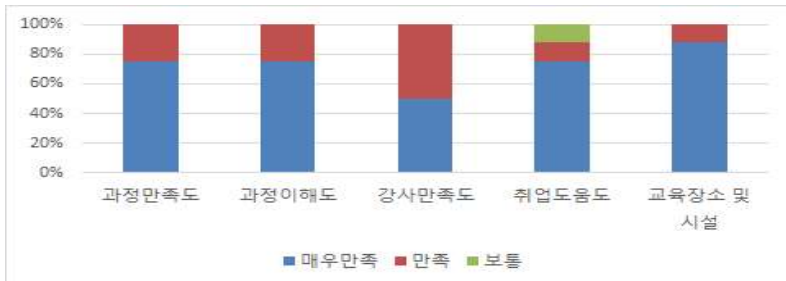
○ 특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만족도

- 조사방법 : 과정 완료 후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
- 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가 매우만족 75%, 만족 25%로 높게 나타남
- 특히 훈련이 취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8% 임



[훈련과정의 전체 만족도]

[취업활동에의 도움정도]



[창업 및 재창업 지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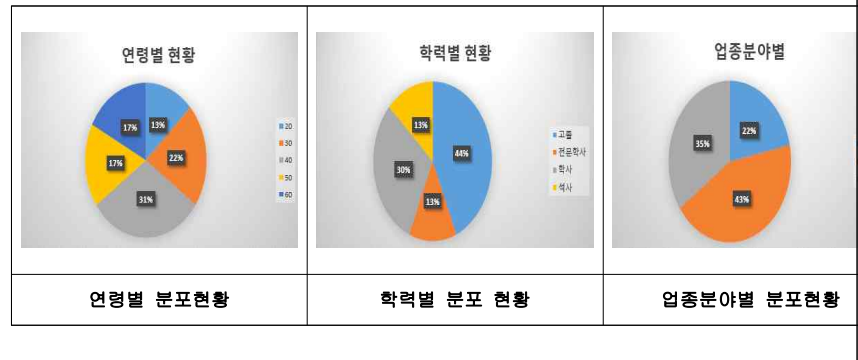
○ 창업 및 재창업 지원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

- 사업계획 (정량적) : 교육인원 23명 양성 (11명 창업)
- 목표대비 달성도

구분	계획(명)	추진성과(명)	계획 대비 추진실적(%)
훈련인원	23	25	108.7%
수료인원	19	24	126.3%
창업인원	11	16	145.5%

○ 참여대상 특성 : 연령 및 성별, 학력별, 창업업종분야별 현황

- (참여자의 연령 및 성별 현황) 교육수료인원 24명 중 20대가 3명 (13%), 30대가 5명(22%), 40대가 8명(31%), 50대 4명(17%), 60대 4명(17%)으로 40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남성은 8명, 여성은 15명으로 여성비율이 65%를 차지함
- (참여자의 학력별 분포 현황) 참여자의 학력은 고졸 10명(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학사가 3명(13%), 학사가 7명(30%), 석사가 3명(13%)으로 분포되어 있음.
- (창업업종분야별 현황) 창업자의 업종분야는 제조업이 8(35%)명, 서비스업 관련 5명(22%), 요식업 및 휴게음식점 10명(43%) 로 요식업 및 휴게음식점 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고용위기지역 선정 후 일자리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보다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요식업계 및 휴게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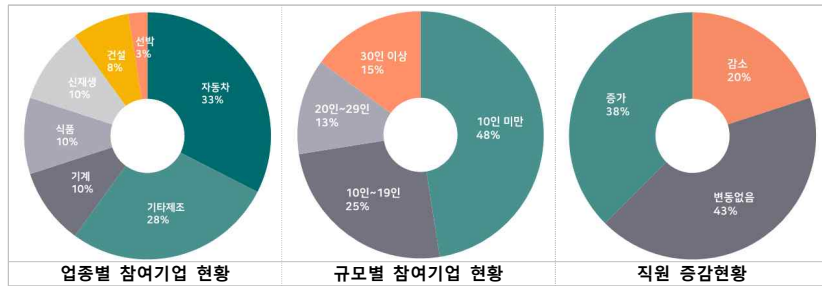
○ 기업지원사업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 100% 달성

- 총 40개사 160건 컨설팅 지원, 12개사 성장지원금 지원

구분	계획(개사)	추진성과(개사)	계획 대비 추진실적(%)
컨설팅 기업	40	40	100
컨설팅 횟수	160	160	100
수요맞춤형 기업성장지원	12	12	100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 40개사, 160건

- 업종별 자동차 분야 33%, 기타제조 28%의 비중 차지
- 종사자 규모별 참여기업의 비중은 10인 미만이 48%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0인~19인이 25%로 뒤를 이음
- 직원수 증가기업이 15개사(38%), 유지(17개사, 43%), 감소(8개사, 2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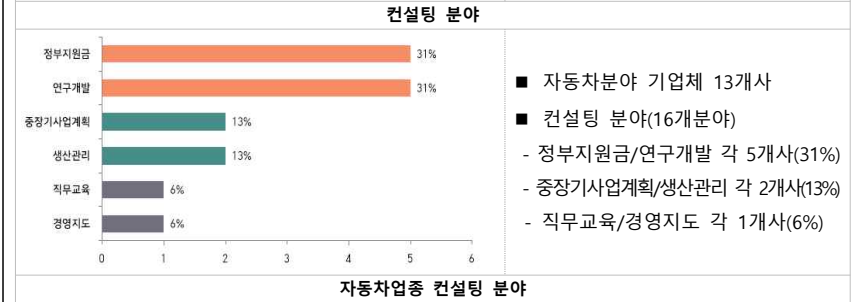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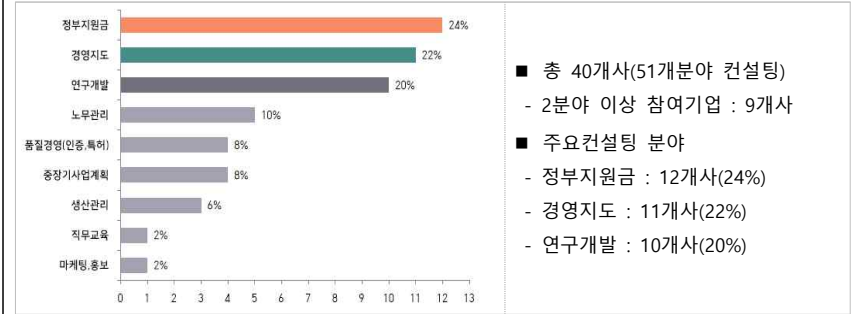


○ 참여기업의 컨설팅 분야

순	분야 업종	합계	경영 지도	노무 관리	마케팅, 홍보	생산 관리	연구 개발	정부 지원금	중장기 사업계획	직무 교육	품질 경영
1	자동차	13(16)	1			2	5	5	2	1	
3	기계	4(5)		2			2	1			
4	식품	4	2	1			1				
5	신재생	4	1	1	1				1		
6	건설	3	1						1		1
7	선박	1(3)					1	1			1
2	기타제조	11(16)	6	1		1	1	5			2
	합계	40 (51)	11	5	1	3	10	12	4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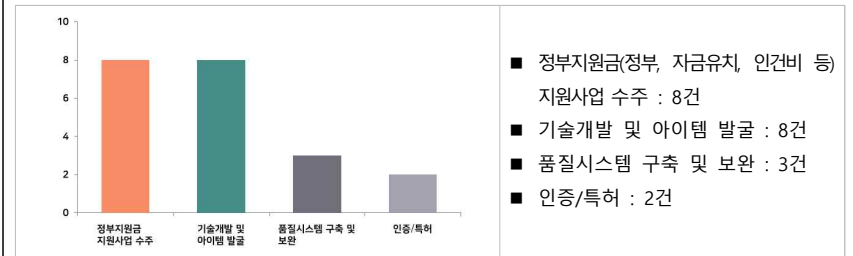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성과]

- 정부지원금, 경영지도, 연구개발 분야 컨설팅이 65% 이상의 비중 차지
-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원금 활용과 연구개발 필요성 증대
- 자동차분야 기업은 주로 정부지원금, 연구개발 분야 참여



○ 컨설팅 주요 성과

- 정부지원 사업수주 직·간접 기여
- 제도전창업패키지, 2019년 전북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 등 8건, 413,566천원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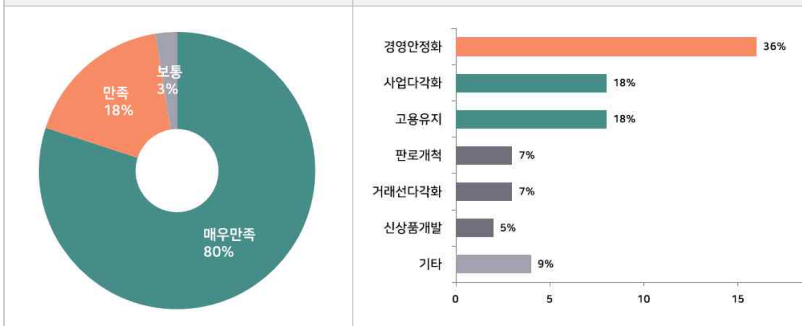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성과]

○ 컨설팅 만족도 조사

- 전반적인 만족도 97%로 높고, 컨설팅이 업체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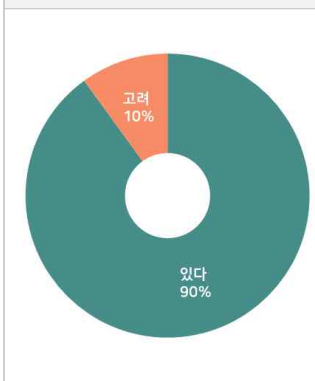
1. 컨설팅 사업에 대한 평가 : 만족 97.5% 2. 업체에 미치는 효과



3. 컨설팅 방법, 컨설턴트, 기간 등에 대한 만족도



4. 향후 사업 참여 의향



5. 기업의견

슈퍼에너지엑스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컨설팅 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음
엑스레벨	시장분석, 수출바우처, 공장설립까지 다양한 방면의 심도있는 컨설팅 지원에 비해 기간과 횟수가 부족
우진물산	정기적인 자문이 필요함
(주)세이브에너지	지속적인 컨설팅 연계지원사업 필요
(유)스틸앤에너지	컨설팅과 연계된 마케팅 지원사업 등이 있으면 좋을것 같음
(주)다소비전트통신	컨설팅과 연계된 후속지원사업 필요
(유)경성에스앤피	지속적인 컨설팅 실시로 실질적인 효과 지속 기대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홍보 및 언론보도]

○ 찾아가는 홍보지원단 운영

- 운영기간 : '19.3~12월
- 운영인원 : 2~3명(주 3~4일, 4~5시간/일)
- 주요내용
 - 관공서, 대형마트 등 이동식 홍보 창구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고용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시민 참여 유도

- 주요성과

- 총 22,300여명 대상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홍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신규 참여자 발굴 180건

○ 대한민국 일자리정책박람회

- 행사명 :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 일정 : 2019.3.21.(목)~23(토)
- 장소 : 서울 코엑스 Hall D 및 컨퍼런스 홀
- 주요내용

-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홍보 및 우수사례 전시(조립식 부스 1동 운영)
- 각 자치단체 및 기관별 일자리 창출 사례 공유 및 미래 일자리 체험 등

○ 수기공모전

- 행사명 : '19 행복한 희망나눔 스토리 수기공모전
- 모집기간 : 2019.10.21.(월)~11.1(금)
- 주요내용
 -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교육수료, 취업성공 등 우수사례 38건

○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언론보도 : 총 438건

- 언론 기사 보도자료 : 436건
- 인터뷰 등 영상보도자료 2건

○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 총괄

매체	내용	기간	비고
버스광고	· 군산 시내버스 뒷면 광고 : 15대	3.1~5.31(3개월)	
인터넷	· 군산미래신문, 군산신문 인터넷 배너광고 게재	2.1~12.31(11개월)	
현수막	· 홍보현수막 게재 : 100장	2월	
지역 정보지	· 군산교차로 지면광고 게재(10회)	5월~6월	
라디오/TV광고	· 라디오 광고(MBC-FM, CBS-AM), 일 2~3회	3.4~5.31/9.1~11.30 (6개월)	
	· TV 자막광고(JTV), 일 5회	3.4~5.31(3개월)	
	· TV 영상광고(금강방송), 일 20회	9.1~12.31(4개월)	
영화관 스크린	· 롯데시네마 스크린 광고 송출(14개관)	6.1~8.31(3개월)	
	· 센터 홍보용 리플릿 제작 : 15,000부	3월, 5월, 10월	
홍보물제작	· 수기사례집 제작 : 3,000부	4월, 11월	
	· 2020년도 특성달력 제작 : 3,180부	11월	

3)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성과 자체평가

[사업수행 결과 잘된 점]

○ 관내 타부처사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자리창출 활성화

목 적	1. 지역내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 및 창업관련 행사(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협력과 중복행사를 방지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함. 2. 상호협업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하기 위함
참여 유관기관	■ 참여 유관기관 현황 - 전북새만금 산학융합원 김희진 실장 외 - 군산상공회의소 김승주 팀장 - 전북인력개발원 박병석 팀장 - 전북자동차기술원 최태정 선임 - 군산대 기술혁신센터 김용하 팀장 - 군산 청년센터·창업센터 김진아 팀장 외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황현식 팀장 -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황다솔 팀장
추진성과	■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 : 3회 ■ 일자리 창출 박람회 및 일자리한마당 협업운영 : 6회 ■ 취업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조언 등 : 수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

- 군산시와 협업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매칭데이 운영(2회)
- 참여기업 모집, 청년구직자 발굴, 취업소양교육 실시, 행사 기획 및 운영
- 실적 : 총 59명 취업성공

○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현황 및 요구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서비스 희망분야 : 취업지원(66.3%), 직업훈련(16.4%), 창업(4.8%) 등으로 응답
 -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한 후 취업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 직업훈련과정 희망분야 수요 : 전기,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로더 등)
- 서비스 이용자 연계서비스 지원성과

구 분	서비스 연계
초기상담	· 초기상담 · 실직전 상태 및 이직 희망분야 파악 · 희망 근무지 및 연봉 등 파악 · 서비스 이용자의 구직경쟁력 파악 · 관련 프로그램 안내 및 정부지원사업 소개
취업지원	· 취업알선 및 취업활동 지원 2,247건, 취업자 1,227명 · 청년층/중장년/여성 등 계층별 재취업지원 · 맞춤형 매칭데이 및 개인별 상시 이력서컨설팅 지원 ·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비 지원 · 취업자 관리를 위한 취업성공기념품 지급 등
직업훈련	· 직업훈련참여현황 : 199명 · 여성특화훈련 : 한식조리사, 보육교사 훈련 연계 · 취업연계형 지역 신산업 훈련 : 위그신 해양레저사, 지상조업사 훈련 연계 · 취업유망직종 훈련 운영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능사, 전기차 2차전지 자동화장비, 특장차취업전문과정, 자동차정비인력양성 과정 · 군산내 직업훈련 연계 : 직업훈련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중장비) 등
심리안정지원	· 집단상담 및 스트레스관리, 힐링프로그램 1,485명 지원 · 한국 EAP 1:1 심층상담 670건 진행
창업지원	· 창업분야 관심자 상담 : 366건 →창업교육 24명 →창업 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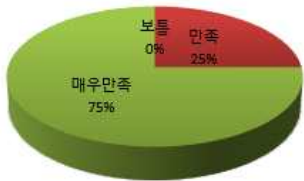
-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성과 창출
 - 경력단절 여성의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성과 달성 : 28명

과정명	교육인원		수료인원		자격증취득		취업인원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	20	20	16	20	-	15	8	10
유희보육교사 재취업과정	40	40	32	39	해당없음		16	18
합 계	60	60	48	59	15		2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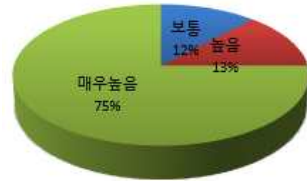
· 신산업 및 수요맞춤형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성과 달성 : 76명

과정명	교육인원		수료인원		자격증취득		취업인원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자동차정비전문인력	20	15	16	10	8	8	8	6
전기차2차전지 자동화장비	20	20	16	16	해당사항없음		8	8
특장차취업전문	20	15	16	11	해당사항없음		8	4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20	20	14	17	10	10	10	14
위그선해양레저사	10	10	8	9	해당사항없음		7	6
항공지상조업사	60	59	48	53	해당사항없음		38	38
합 계	150	139	118	116	18		79	76

· 훈련의 취업도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88%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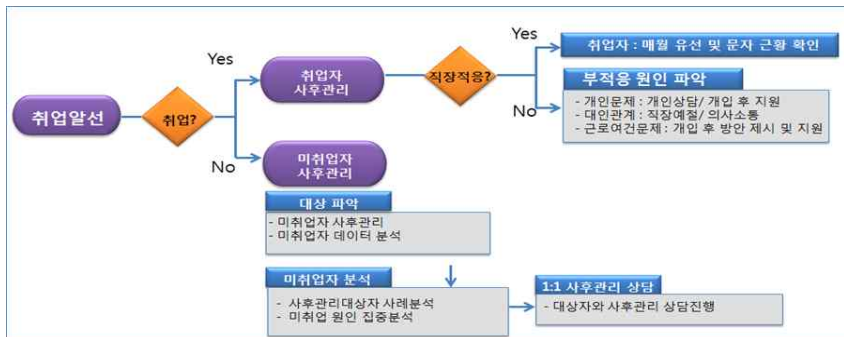
[훈련과정의 전체 만족도]



[취업활동에의 도움정도]

- 직업훈련생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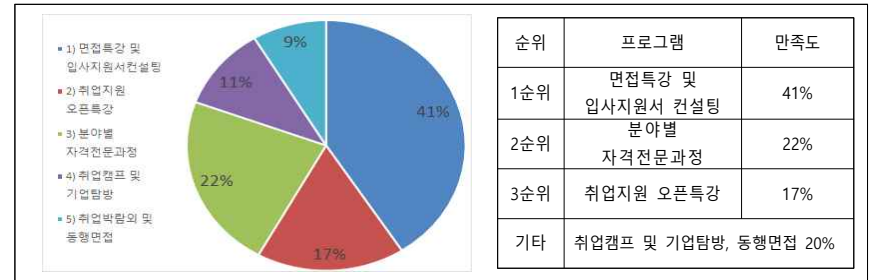
- 취업알선 : 수행기관과 센터 통과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기업탐방, 매칭데이 등 운영
- 미취업자 : 지속적인 구직알선 정보제공,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취업자 : 고용환경 및 기업적응도 파악, 직무분야 재교육 지원
- 기업체 : 채용인력 업무수행 능력 및 종합 만족도 파악, 제직자 교육 연계



○ 프로그램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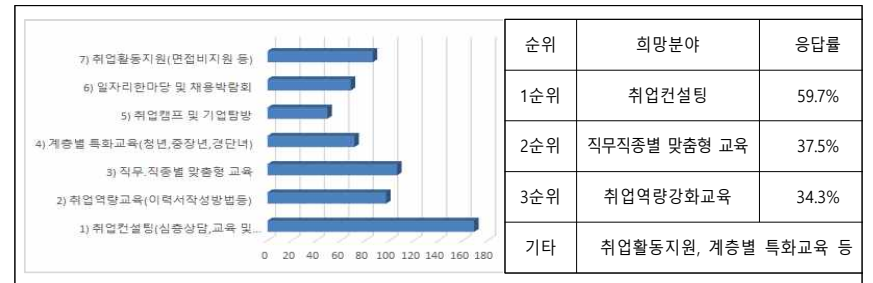
- 서비스 이용자 전수조사('19.11~12월)를 통한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 추진

- 현재 상태파악 및 취업의지 파악
- 상태별/희망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의 만족도조사 및 희망 프로그램 파악
- 프로그램 만족도



-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분야

- 취업컨설팅과 직무/직종별 직업전문교육, 취업역량강화교육 희망



- 취업자 고용유지 모니터링(2019. 1~9월 취업자 대상)

- 모니터링 대상인원(상반기취창업자 772명, 2/4분기취창업자 352명)
- 모니터링 시기 : 1차 2019.07, 2차 2019.11~12.
- 응답현황 : 대상자(취창업자) 1,124명 중 763명(67.8%)이 모니터링에 응답
- 사후관리 모니터링 미응답자는 361명(32.1%)으로 응답거부 및 결번 등 확인불가자

구 분	사후관리 대상인원		
	계획	실행	달성률
(1~2분기)상반기취창업자	772명	512명	66.3%
3분기 취창업자	352명	251명	71.3%
합계	1,124명	763명	67.8%

- 고용상태(사후관리 응답자, 763명)
 - 응답자 중 재직상태인 응답자의 598명(78.4%), 퇴직상태 165명(21.6%)임.
 - 현재 재직상태 응답자 중 처음 취업한 사업체에서 재직을 유지하는 인원이 453명, 퇴직후 재취업한 인원 145명으로 조사 됨

구 분	계	사후관리 대상인원			
		재직상태			퇴직상태
		전체	재직(유지)	재직(퇴직 후 재취업)	
상반기취창업자	512명 (100.0%)	393명(76.8%) 393명(100.0%)	283명(55.3%) 283명(72.0%)	110명(21.5%) 110명(28.0%)	119명(23.2%)
3분기취창업자	251명 (100.0%)	205명(81.6%) 205명(100.0%)	170명(67.7%) 170명(82.9%)	35명(13.9%) 35명(17.1%)	46명(18.3%)
합계	763명 (100.0%)	598(78.4%) 598(100.0%)	453(59.4%) 453(75.8%)	145(19.0%) 145(24.2%)	165(21.6%)

- 고용상태별 직종(직무)분석
 - 2019년 11월 기준, 취업 직종(직무)는 1순위 생산/품질/구매, 2순위 서비스/조리/단순 노무, 3순위 사무/회계/총무, 4순위 기타(정부 일자리 등)로 나타남.
 - 재직상태를 지속유지한 직종(직무)은 1순위 생산/품질/구매, 2순위 서비스/조리/단순, 3순위 사무/회계/총무직으로 나타남. 전체 취업자와 비교해 볼 때 생산/품질/구매의 지속 유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구 분	계	사후관리대상인원								
		재직(유지)				퇴직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퇴직 소계	재직(퇴직 후 재취업)	인원	백분율	인원
합계	763	100%	453	100%	310	100%	145	43%	165	57%
1. 사무직/회계직/총무직	104	14%	83	18%	21	7%	8	3%	13	4%
2. 제조생산직/품질/구매	221	29%	111	25%	110	35%	57	18%	53	17%
3. 물류/기계직/중장비/운전/자성조업사	47	6%	24	5%	23	7%	13	4%	10	3%
4. 의료직/사회복지직/요양보호	82	11%	56	12%	26	8%	11	4%	15	5%
5. 보육직/교사/강사	24	3%	17	4%	7	2%	5	2%	2	1%
6. 서비스직/조리직/단순노무직(청소/경비)	157	21%	99	22%	58	19%	20	6%	38	12%
7. 기타(정부일자리/희망근로/공공근로)	103	13%	38	8%	65	21%	31	10%	34	11%
8. 사업직/창업주	25	3%	25	6%	0	0%	0	0%	0	0%

○ 2019년 취업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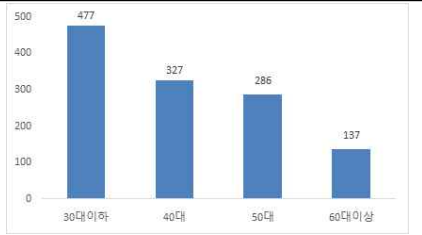
- 2019년 취·창업자 현황 : 1,227명

-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 센터 통합프로그램 이용자 : 취·창업자 1,107명
- 직업훈련 참여자 : 신재생에너지설비과정 등 8과정, 199명 훈련, 수료 175명, 104명 취업(취업률 59.4%)
-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 16명 창업(기술제조업 창업, 생활혁신형 창업)

- 취·창업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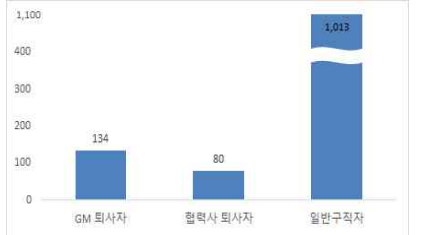
■ 연령 현황

- 취업자 성별현황은 남 551명(44.9%), 여 676명(55.1%)로 여성층이 10%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477명(38.9%)로 높게 나타남. 이는 청년층을 선호하는 기업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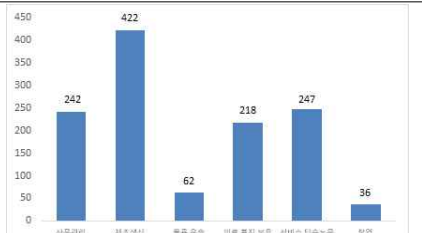
■ 재취업 전직장 현황

- GM퇴사자 및 협력사 퇴사자의 취업률이 일반구직자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남. 이는 자동차 퇴직인력이 희망 근무조건에 맞는 취업처를 찾지 못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명신·전기차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취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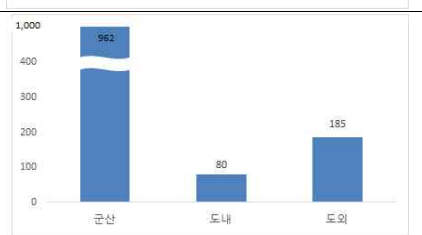
■ 취업분야(직종) 현황

- 취업자의 34%(422명)가 제조생산분야 취업자로 나타남. 앞서 분석한 이직을 역시 이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으로 관내 일자리가 구직자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또한 여성 및 중장년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의료,복지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봄.



■ 취업처 시·도 현황

- 군산 관내의 취업자가 78.4%로 나타남. 이는 군산지역의 인구유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구직자가 관내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우리센터가 군산시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음.



4)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운영성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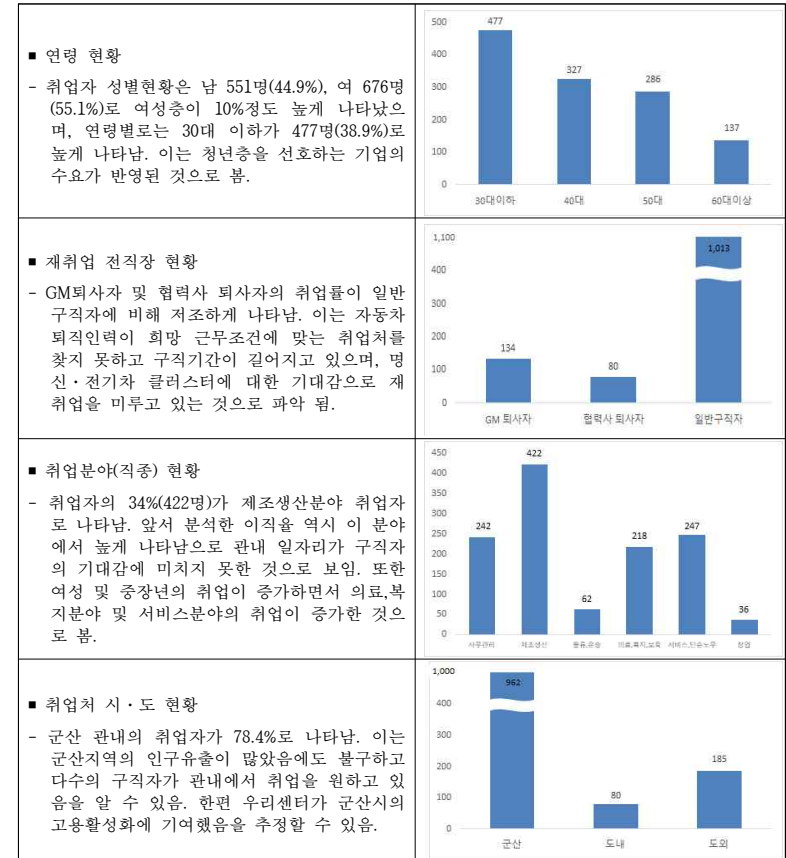
□ 프로그램 달성도 평균 184%로 운영실적 우수

○ 취업성과 1,227명으로 목표 취업자 827명의 300% 이상 달성

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달성		달성도(%)		
		인원	취업	인원	취업	인원	인원	
군산 고용위기지역 퇴직자(구직자) 통합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취업지원 프로그램	1,500		3,764		251	422	
	· 마음관리프로그램	900	250	1,485	1,055	165		
	· 일자리한마당	80개사		151개사		189		
군산 고용위기지역 실직(퇴직)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사업	교육	수료	취업	교육	수료	취업	평균	
	· 단기 직업 훈련	120	96	48	110	96		46
	· 장기 전문 직업 훈련	20	14	10	20	17		14
	· 신산업 전문 직업 훈련	70	56	45	69	62		44
군산 고용위기지역 극복 일취월장 창업지원사업	· 창업교육	23명, 19명 수료		25명, 24명 수료		145		
	· 창업/재창업지원	창업지원 11명	11	창업지원 15명	16			
군산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40개사	160건	40개사	160건	100		
	· 수요맞춤형 기업성장지원	12개사	36	12개사	52	144		

○ 2019년 취업자 분석 : 1,227명

-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 센터 통합프로그램 이용자 : 취·창업자 1,107명
- 직업훈련 참여자 : 104명 취업(취업률 59.4%)
-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 16명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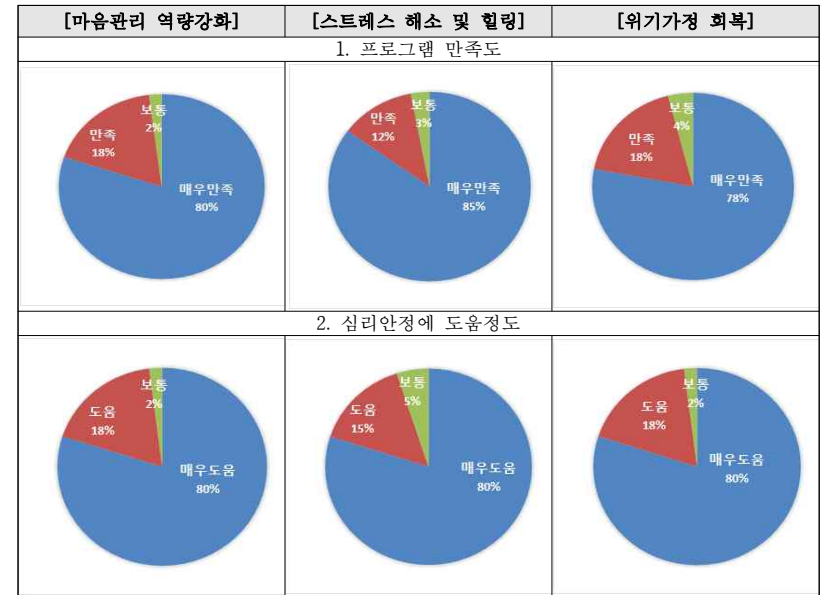
□ 초기상담 통한 프로그램 연계 및 실직자 심리안정 지원 우선추진

- 초기상담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심리상담 등 대상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세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직업훈련 과정 참여와 연계함
- 특히 서비스 이용자 중 실직자 대상 심리적 안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
- 직업직업훈련과 연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례



□ 마음관리 역량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위기가정 회복과 심리안정에 기여

- 마음관리 역량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에는 총 11개 프로그램 1,485명 참여하여 직업훈련생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구직자 부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이는 실직자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구성원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생, 경력단절 여성, 대상을 찾아가는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기간 및 구직활동 기간 중의 마음관리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마음관리 역량강화 및 스트레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평균 만족도는 95.8%, 프로그램의 심리안정에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 응답이 80.3%. 특히 직업훈련 중 심리안정 프로그램이 직업훈련 기간 초기적응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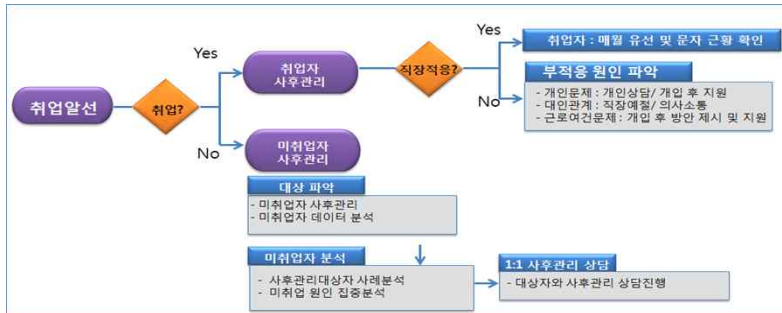


**□ 퇴직자/구직자, 기업 수요반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산업 분야 취업 유도**

-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28명, 신산업 및 수요맞춤형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76명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목표 달성도는 101.0%임
- 퇴직자/구직자의 수요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특화훈련과정(전기차 2차전지, 위그선 해양레저사, 항공지상 조업사)을 운영함으로써 청년층 및 퇴직자에게 새로운 분야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항공지상 조업사의 경우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체 및 훈련생의 만족도가 높아 2019년도에 3회차 과정을 운영함

□ 직업훈련생 취업지원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제도 운영

- 직업훈련생 취업지원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센터 통합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기업탐방, 매칭데이 등을 운영하고, 미취업자를 위한 지속적인 구직알선 정보제공,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취업자는 고용환경 및 기업적응도 파악, 직무분야 재교육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체를 위하여 채용인력 업무수행 능력 및 종합 만족도를 파악하여 재직자 교육과 연계 운영함.
- 특히 서비스 이용자 전수조사('19.11~12월)를 통해 취업자의 현재 상태 및 취업의지 파악하여, 상태별, 희망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 취업자 고용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취업자 고용상태 관리를 위해 대상자(취창업자) 1,124명 중 763명(67.8%)에 대해 두 차례(1차 2019.07, 2차 2019.11~12.) 모니터링을 실시
- 재직상태 응답자 중 처음 취업한 사업체에서 재직을 유지하는 인원이 453명, 퇴직 후 재취업한 인원 145명으로 조사 됨

구 분	계	사후관리 대상인원			
		재직상태			퇴직상태
		전체	재직(유지)	재직(퇴직 후 재취업)	
상반기 취창업자	512명 (100.0%)	393명(76.8%) 393명(100.0%)	283명(55.3%) 283명(72.0%)	110명(21.5%) 110명(28.0%)	119명(23.2%)
3분기 취창업자	251명 (100.0%)	205명(81.6%)	170명(67.7%)	35명(13.9%)	46명(18.3%)
		205명(100.0%)	170명(82.9%)	35명(17.1%)	
합계	763명 (100.0%)	598(78.4%)	453(59.4%)	145(19.0%)	165(21.6%)
		598(100.0%)	453(75.8%)	145(24.2%)	

5.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에 따른 고용상황 회복도

- 2019년 군산시의 고용 관련 지표는 2018년에 비해 다소 개선
 -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예산투입 등 지원대책 결과 2019년 하반기 고용률, 청년고용률, 취업자 수, 피보험자 수 등 고용관련 지표는 2018년 하반기 대비 다소 상승

구 분	군 산									
	2015 (상)	2015 (하)	2016 (상)	2016 (하)	2017 (상)	2017 (하)	2018 (상)	2018 (하)	2019 (상)	2019 (하)
15세 이상 인구	230.4	231.5	232.5	233.9	233.1	232.7	232.0	232.0	232.2	231.9
경제활동인구	128.0	129.2	130.3	131.0	132.6	125.6	128.5	127.2	131.0	131.8
취업자	127.1	128.0	128.4	128.9	130.5	122.5	123.2	123.2	126.4	128.9
실업자	0.9	1.3	1.9	2.1	2.1	3.1	5.3	4.0	4.6	2.9
비경제활동인구	102.4	102.2	102.1	102.9	100.5	107.2	103.5	104.8	101.2	100.0
경제활동 참가율	55.5	55.8	56.1	56.0	56.9	54.0	55.4	54.8	56.4	56.9
고용률	55.2	55.3	55.2	55.1	56.0	52.6	53.1	53.1	54.4	55.6
15~64세 고용률 (OECD 기준)	60.2	61.0	60.6	60.1	61.4	59.2	59.3	58.5	59.6	60.7
실업률	0.7	1.0	1.5	1.6	1.6	2.5	4.1	3.2	3.5	2.2

- 2019년 하반기 고용률(15~64세)은 60.7%로 전년동기(58.5%) 대비 2.2%p 상승하였으나, 전국 고용률 67.1% 대비 6.4%p 낮으며, 고용률(15세 이상)은 55.6%로 전년동기(53.1%) 대비 2.5%p 상승하였으나, 전국 고용률 60.8% 대비 5.2%p 낮음.
 - 2019년 하반기 청년층 고용률은 29.4%로 전년 동기(27.5%) 대비 1.9%p 상승하였으나 전국 고용률 43.8%에 비해서는 14.4%p 낮음.
 - 2019년 하반기 실업률은 2.2%로 고용위기 전 실업률 0.7-1.6%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감소 추세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및 운수 및 창고업의 피보험자수 증가 등 개인사업자 증가
- 2019년 군산지역 자동차부품 사업장 및 피보험자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 임금 체불금액도 증가하여 여전히 제조업 회복이 지연

제4장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평가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군산시 관내 사업주 102명(자동차업계 54명, 기계조선업계 44명, 기타 4명)
 - 근로자 및 퇴직자 106명
- 조사방법 및 기간
 - 기업체 방문 서면조사
 -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시, 군산단지 경영자협의회 공동조사
 - 조사기간 : 2020년 2월 3일- 2월 21일

2. 설문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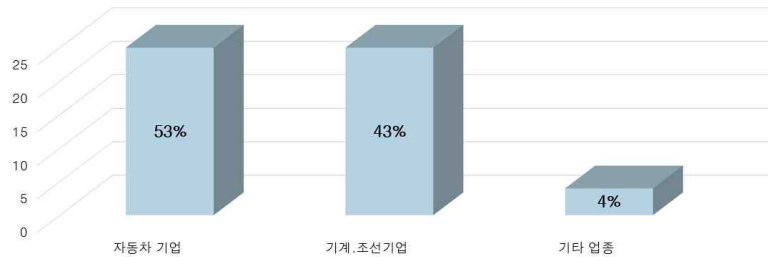
- 총괄 설문 : 고용위기 지원제도 수혜여부, 지원제도 이용정도 등
- 사업주 설문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인지, 활용현황 등 개요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별 서비스 만족도 : 신청절차, 지원규모, 도움정도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건의사항
- 근로자 및 퇴직자 설문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인지, 활용현황 등 개요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별 서비스 만족도 : 신청절차, 지원규모, 도움정도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 근로자(퇴직자)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 희망 취업분야 및 건의사항

제2절 사업주 조사결과

1. 응답 기업의 특성

□ 응답 기업의 산업분류

- 사업주 대상 응답 기업은 총 102개로서 자동차 관련기업이 54개로 53%, 기계조선 기업이 44개로 43%, 기타 기업이 4개로 4%를 차지하였음.



응답 기업의 산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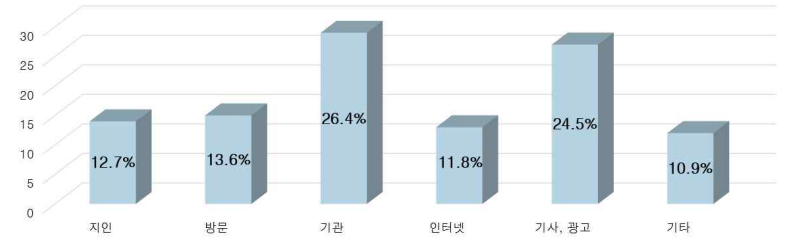
■ 응답수 102개 기업

구분	자동차기업	기계조선기업	기타 업종	합계
응답수(개, %)	54(53.0)	44(43.0)	4(4.0)	102(100.0)

2.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활용 현황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

- 고용위기지역을 알게 된 경로는 관공서 및 관련기관 직원이 2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언론기사 및 광고 등이 24.5%로 나타나 고용위기지역 지원 제도에 대해 고용관련 직원 및 홍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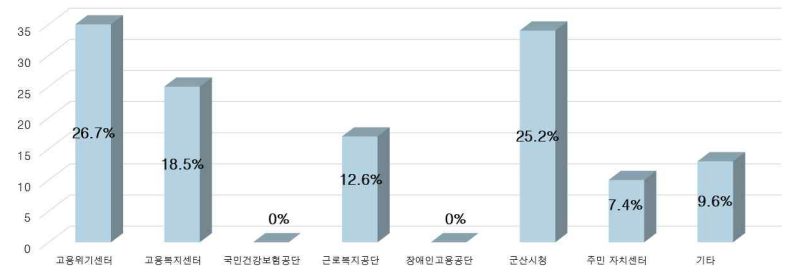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

■ 응답수 110개 (중복응답)

구분	주변 지인	직접 방문	관공서 및 관련 기관 직원	인터넷 검색	언론기사, 광고, 등	기타
응답수(개)	14 (12.7%)	15 (13.6%)	29 (26.4%)	13 (11.8%)	27 (24.5%)	12 (10.9%)

□ 고용위기에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문 또는 접한 기관

-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받기 위해 방문한 기관은 군산시 고용위기 종합지원 센터와 군산시청이 각각 26.7%와 25.2%를 차지하여 군산시를 통한 지원이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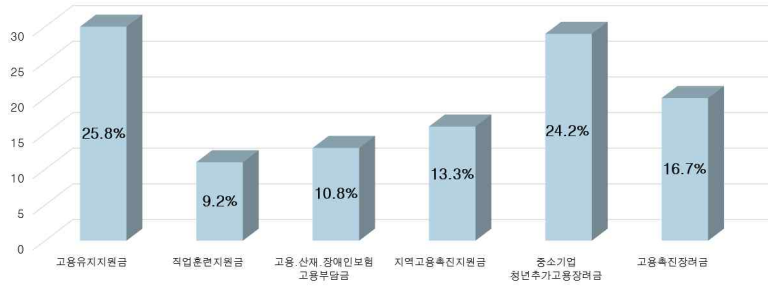
고용위기에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문 또는 접한 기관

■ 응답수 136개 (중복응답)

구분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군산 고용복지센터	근로복지공단	군산 시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기타
응답수(개)	36 (26.7%)	25 (18.5%)	17 (12.6%)	34 (25.2%)	10 (7.4%)	13 (9.6%)

□ 고용위기 지원제도 관련 이용했던 지원제도

○ 고용위기 지원제도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제도는 고용유지지원금 25.8%,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4.2%, 고용촉진장려금 16.7%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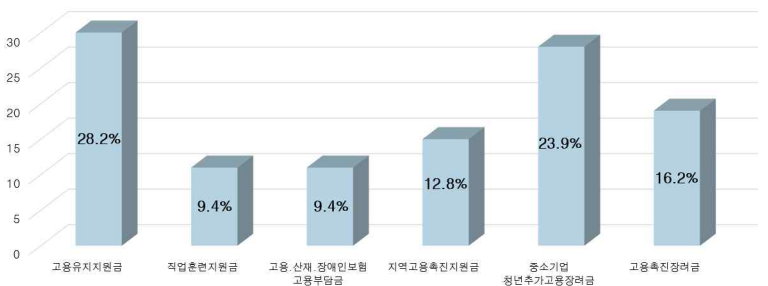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관련 이용했던 지원제도

* 응답수 120개 (중복응답)

구분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지원금	고용산재보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응답수(개)	31 (25.8%)	11 (9.2%)	13 (10.8%)	16 (13.3%)	29 (24.2%)	20 (16.7%)

□ 고용위기 지원제도 관련 이용했던 지원제도 중 도움이 되었던 사업

○ 고용위기 지원제도 중 도움이 되었던 제도는 고용유지지원금 28.2%,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3.9%, 고용촉진장려금 16.2%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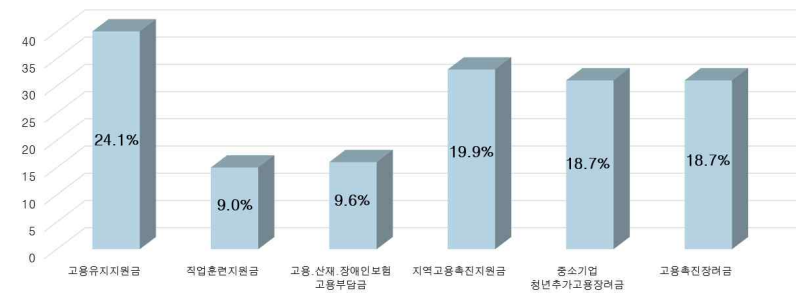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관련 도움이 되었던 사업

* 응답수 117개 (중복응답)

구분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지원금	고용산재보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응답수(개)	33 (28.2%)	11 (9.4%)	11 (9.4%)	15 (12.8%)	28 (23.9%)	19 (16.2%)

□ 고용위기 지원제도 중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고 싶은 제도

○ 고용위기 지원제도 중 추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고 싶은 제도는 고용유지지원금 24.1%, 지역고용촉진장려금 19.9% 순으로 나타나 고용유지장려금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관련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고 싶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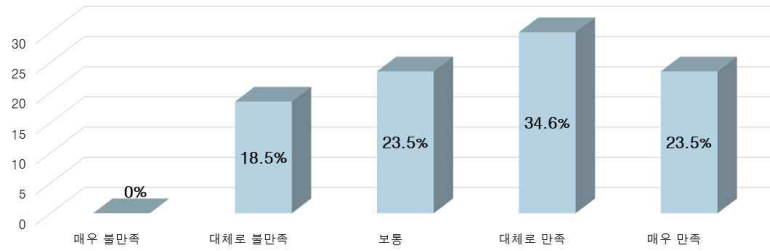
* 응답수 166개 (중복응답)

구분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지원금	고용산재보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응답수(개)	40 (24.1%)	15 (9.0%)	16 (9.6%)	33 (19.9%)	31 (18.7%)	31 (18.7%)

3.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서비스 평가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신청절차에 측면에서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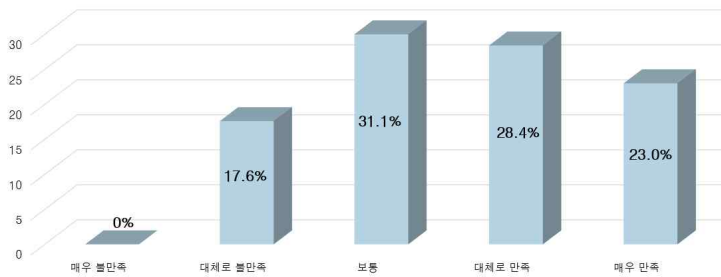
①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해 매우만족 23.5%, 대체로 만족 34.6%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8.1%로 나타났음.



신청절차 만족도 - 고용유지 지원금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고용유지지원금	0 (0.0%)	15 (18.5%)	19 (23.5%)	28 (34.6%)	19 (23.5%)	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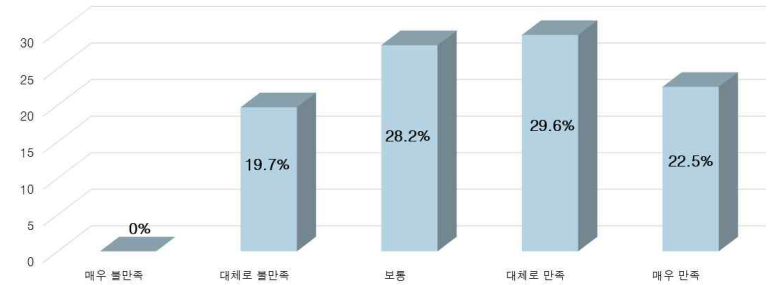
② 직업훈련지원금 :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해 매우만족 23.0%, 대체로 만족 28.4%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1.9%로 나타났음.



신청절차 만족도 - 직업훈련지원금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직업훈련지원금	0 (0.0%)	13 (17.6%)	23 (31.1%)	21 (28.4%)	17 (23.0%)	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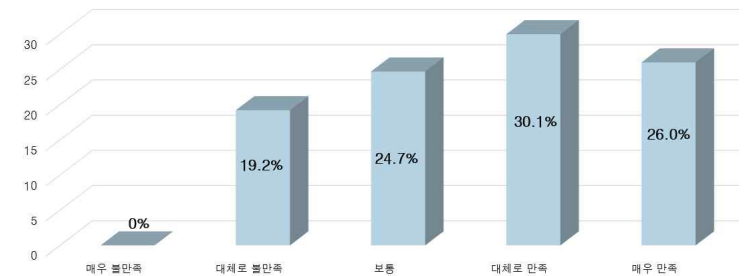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신청절차에 대해 매우만족 22.5%, 대체로 만족 29.6%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2.1%로 나타났음.



신청절차 만족도 - 고용.산재 납부유예, 면제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0 (0.0%)	14 (19.7%)	20 (28.2%)	21 (29.6%)	16 (22.5%)	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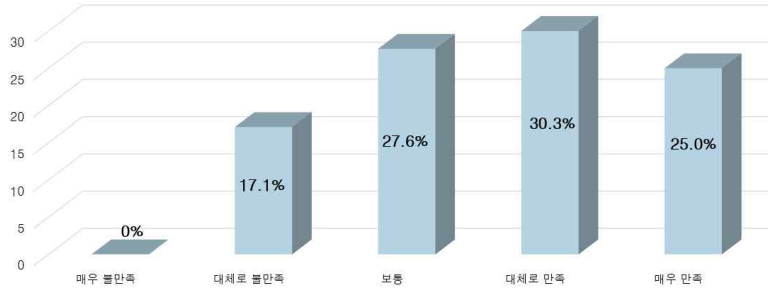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해 매우만족 26.0%, 대체로 만족 30.1%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6.1%로 나타났음.



신청절차 만족도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0 (0.0%)	14 (19.2%)	18 (24.7%)	22 (30.1%)	19 (26.0%)	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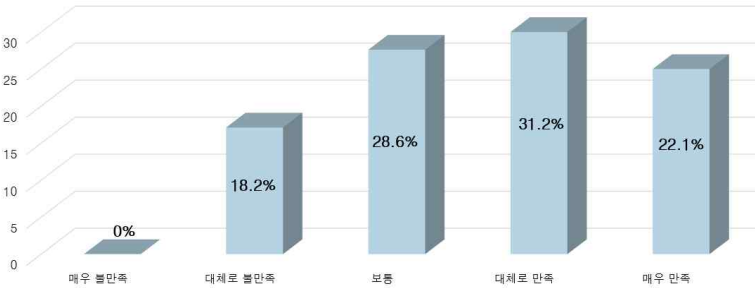
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절차에 대해 매우만족 25.0%, 대체로 만족 30.3%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5.3%로 나타났다.



신청절차 만족도 -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0 (0.0%)	13 (17.1%)	21 (27.6%)	23 (30.3%)	19 (25.0%)	76 (100.0%)

⑥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에 대해 매우만족 22.1%, 대체로 만족 31.2%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3.3%로 나타났다.



신청절차 만족도 - 고용촉진장려금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고용촉진장려금	0 (0.0%)	14 (18.2%)	22 (28.6%)	24 (31.2%)	17 (22.1%)	77 (100.0%)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지원규모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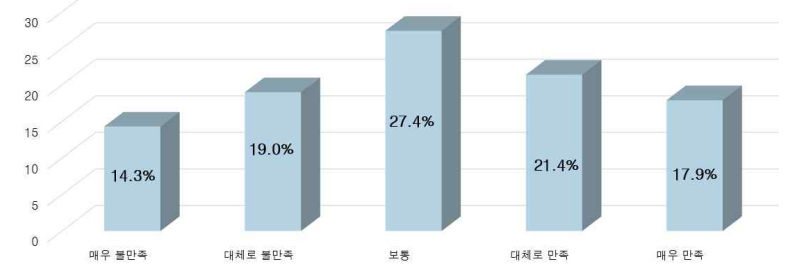
①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만족 18.5%, 대체로 만족 23.9%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42.4%로 나타났다.



지원규모 만족도 - 고용유지 지원금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고용유지지원금	13 (14.1%)	16 (17.4%)	24 (26.1%)	22 (23.9%)	17 (18.5%)	9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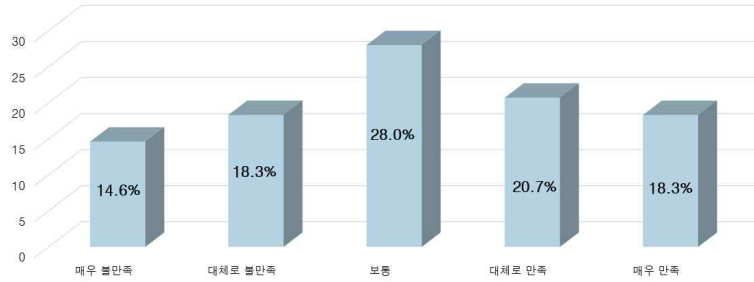
② 직업훈련지원금 : 직업훈련지원금 지원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만족 17.9%, 대체로 만족 21.4%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39.3%로 나타났다.



지원규모 만족도 - 직업훈련지원금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직업훈련지원금	12 (14.3%)	16 (19.0%)	23 (27.4%)	18 (21.4%)	15 (17.9%)	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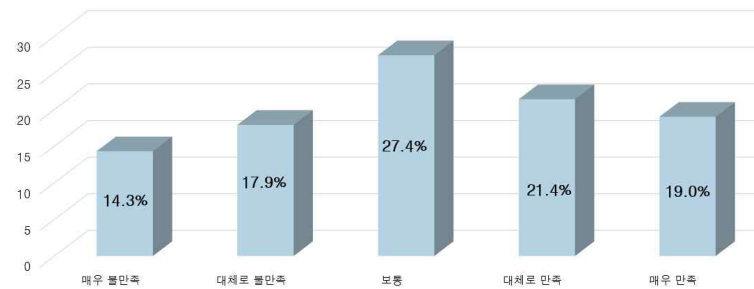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만족 18.3%, 대체로 만족 20.7%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39.0%로 나타났음.



지원규모 만족도 - 고용산재 납부유예, 면제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보험 납부유예, 과태료 면제	12 (14.6%)	15 (18.3%)	23 (28.0%)	17 (20.7%)	15 (18.3%)	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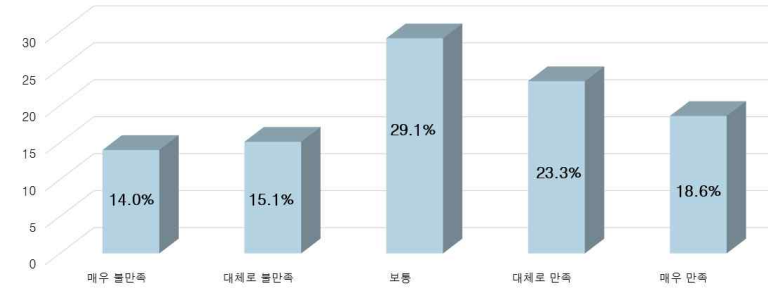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만족 19.0%, 대체로 만족 21.4%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40.4%로 나타났음.



지원규모 만족도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2 (14.3%)	15 (17.9%)	23 (27.4%)	18 (21.4%)	16 (19.0%)	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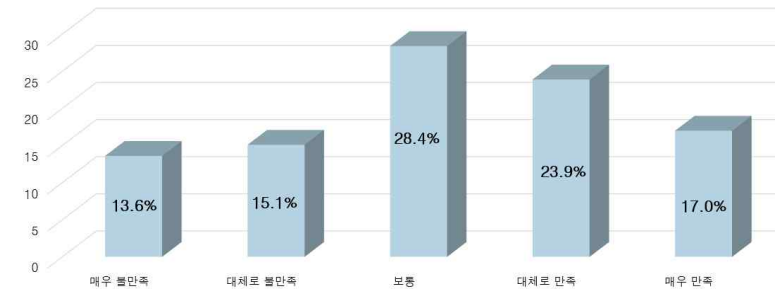
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만족 18.6%, 대체로 만족 23.3%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41.9%로 나타났음.



지원규모 만족도 -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12 (14.0%)	13 (15.1%)	25 (29.1%)	20 (23.3%)	16 (18.6%)	86 (100.0%)

⑥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만족 17.0%, 대체로 만족 23.9%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40.9%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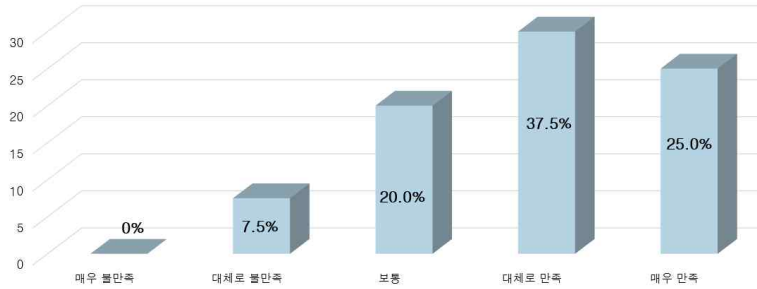


지원규모 만족도 - 고용촉진장려금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고용촉진장려금	12 (13.6%)	15 (17.0%)	25 (28.4%)	21 (23.9%)	15 (17.0%)	88 (100.0%)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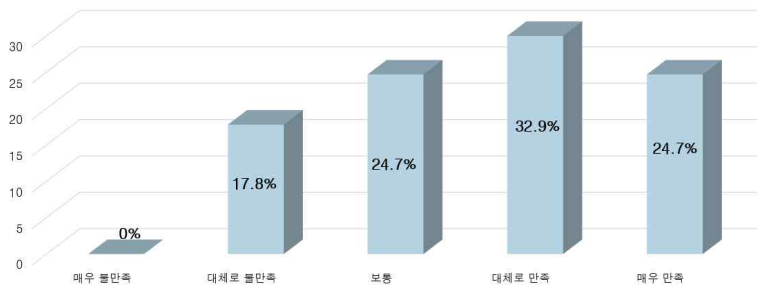
①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 25.0%, 대체로 만족 37.5%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62.5%로 나타났음.



지원사업 만족도 - 고용유지 지원금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 계
고용유지지원금	0 (0.0%)	14 (17.5%)	16 (20.0%)	30 (37.5%)	20 (25.0%)	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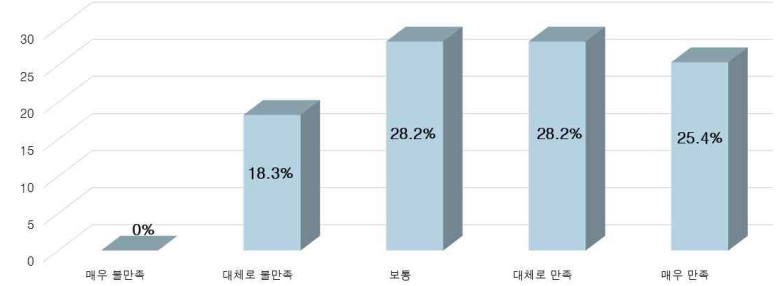
② 직업훈련지원금 : 직업훈련지원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 24.7%, 대체로 만족 32.9%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7.6%로 나타났음.



지원사업 만족도 - 직업훈련지원금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 계
직업훈련지원금	0 (0.0%)	13 (17.8%)	18 (24.7%)	24 (32.9%)	18 (24.7%)	73 (100.0%)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납부유예 과태료 면제) :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 25.4%, 대체로 만족 28.2%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3.6%로 나타났음.



지원사업 만족도 - 고용.산재 납부유예, 면제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 계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보험 납부유예, 과태료 면제	0 (0.0%)	13 (18.3%)	20 (28.2%)	20 (28.2%)	18 (25.4%)	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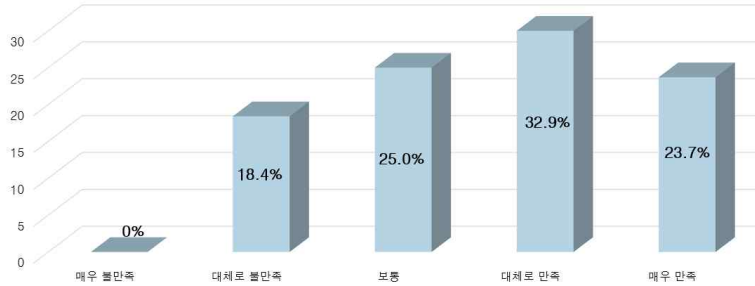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 26.4%, 대체로 만족 33.3%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9.7%로 나타났음.



지원사업 만족도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 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0 (0.0%)	13 (18.1%)	16 (22.2%)	24 (33.3%)	19 (26.4%)	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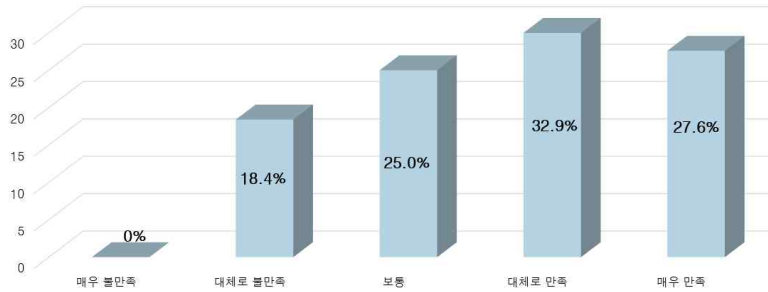
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 23.7%, 대체로 만족 32.9%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6.6%로 나타났음.



지원사업 만족도 -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 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0 (0.0%)	14 (18.4%)	19 (25.0%)	25 (32.9%)	18 (23.7%)	76 (100.0%)

⑥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 27.6%, 대체로 만족 32.9%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60.5%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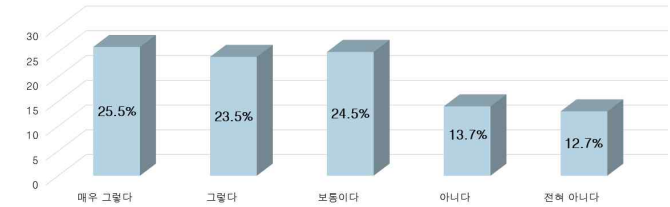
지원사업 만족도 - 고용촉진장려금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 계
고용촉진장려금	0 (0.0%)	14 (18.4%)	16 (21.1%)	25 (32.9%)	21 (27.6%)	76 (100.0%)

4.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가 매출, 고용증대 등 경영안정에 도움 정도

○ 고용위기 지원제도의 경영안정 도움여부에 대해 매우 그렇다 25.5%, 그렇다 23.5% 등 긍정적 응답이 49.0%로 부정적인 응답 26.4%보다 많아 고용위기 지원제도가 대체로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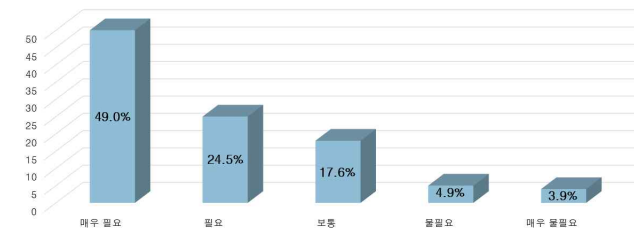
매출, 고용증대 등 경영안정에 도움 여부

■ 응답수 102개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응답수(개)	26(25.5%)	24(23.5%)	25(24.5%)	14(13.7%)	13(12.7%)

□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2020.4월 예정) 필요성

○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 49.0%, 필요 24.5% 등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73.5%를 차지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이 지역 기업들에게 매우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의 지역경제와 경영안정을 위한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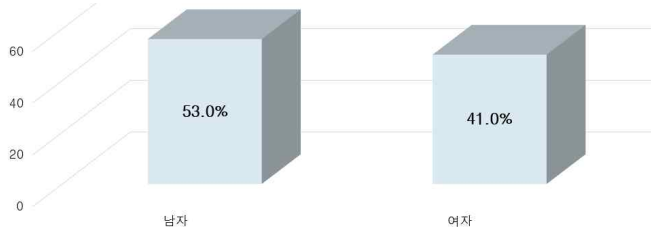
■ 응답수 102개

구 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응답수(개)	50(49.0%)	25(24.5%)	18(17.6%)	5(4.9%)	4(3.9%)

제3절 근로자(퇴직자) 조사결과

1. 응답자 일반현황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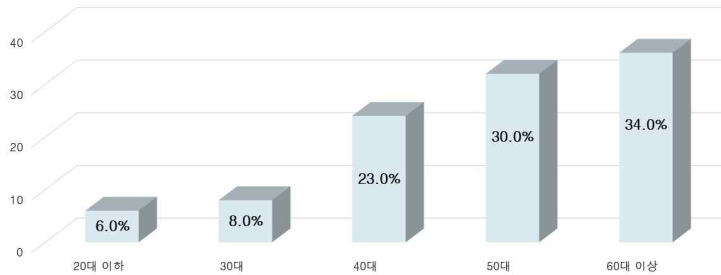


응답자의 성별

응답자 106명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응답자(명, %)	56(53.0)	50(47.0)	106(100.0)

□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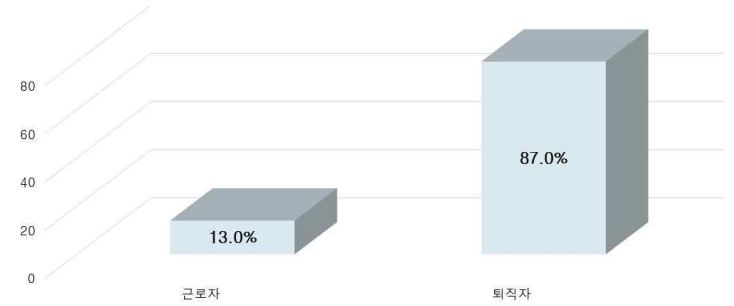


응답자의 나이

응답자 106명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응답자(명, %)	6(6.0)	8(8.0)	24(23.0)	32(30.0)	36(34.0)	10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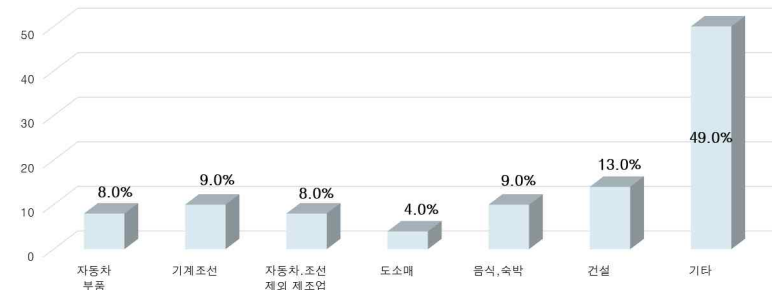
□ 현재 상태



응답자의 상태

구분	근로자	퇴직자	합계
응답자(명, %)	14(13.0)	92(87.0)	10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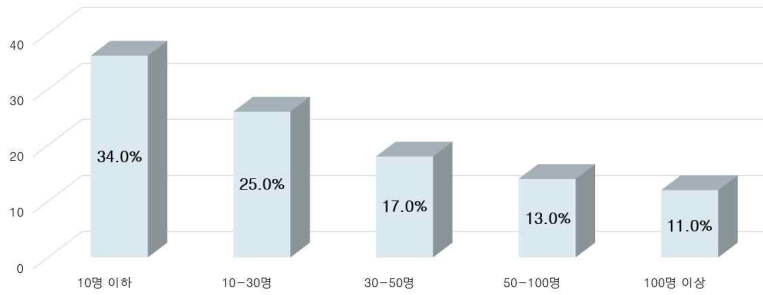
□ 전(현) 직장의 산업형태



응답자 전(현) 직장의 산업형태

구분	자동차 부품	기계 조선	자동차기계의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	건설	기타	합계
응답자(명, %)	8(8.0)	10(9.0)	8(8.0)	4(4.0)	10(9.0)	14(13.0)	52(49.0)	106(100.0)

□ 전(현) 직장의 종사자 규모



응답자 전(현) 직장의 종사자 규모

구 분	10명 이하	10-30명	30-50명	50-100명	100명 이상	합계
응답자명 %	36(34.0)	26(25.0)	18(17.0)	14(13.0)	12(11.0)	106(100.0)

2.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활용 현황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

○ 고용위기지역을 알게 된 경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서가 29.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접 방문이 26.4%로 나타나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를 퇴직 동료 직원 등을 통해 전달된 정보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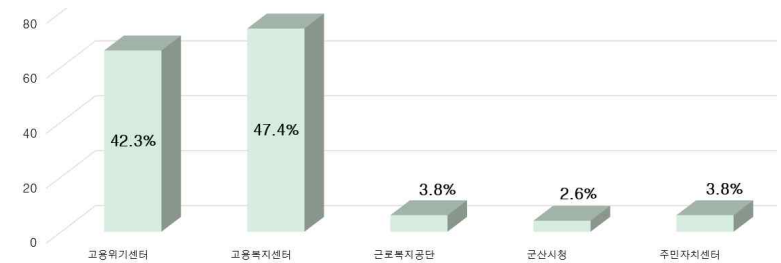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

구 분	주변 지인	직접 방문	관공서 및 관련 기관직원	인터넷 검색	언론기사, 광고 등	합계
응답자 (명, %)	31(29.2)	28(26.4)	17(16.0)	11(10.4)	19(17.9)	106(100.0)

□ 고용위기에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문 또는 접한 기관

○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받기 위해 방문한 기관은 고용복지센터와 군산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각각 47.4%와 4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위기에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문 또는 접한 기관

구 분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군산 고용복지센터	근로복지공단	군산시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합계
응답수 (명, %)	66(42.3)	74(47.4)	6(3.8)	4(2.6)	6(3.8)	156 (100.0)

□ 고용위기 지원제도 관련 이용했던 지원제도

○ 고용위기 지원제도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 28.8%, 직업 훈련 25.4%, 훈련연장급여 22.2%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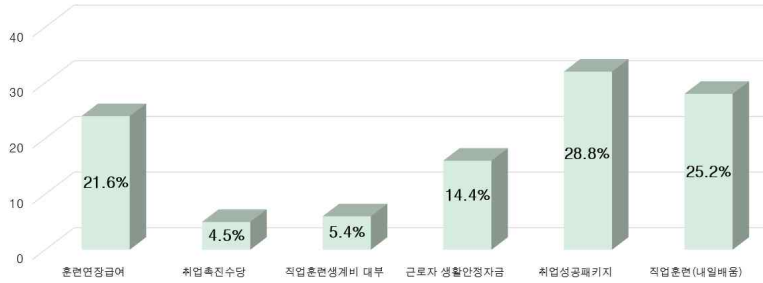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관련 이용했던 지원제도

구 분	훈련연장 급여	취업촉진 수당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취업성공 패키지	직업훈련 (내일배움 카드)	합계
응답수 (명, %)	26(22.0)	6(5.1)	6(5.1)	16(13.6)	34(28.8)	30(25.4)	118(100.0)

□ 고용위기 지원제도 관련 이용했던 지원제도 중 도움이 되었던 사업

○ 고용위기 지원제도 중 도움이 되었던 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 28.8%, 직업훈련 25.2%, 훈련연장급여 21.6% 순으로 나타났음.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관련 도움이 되었던 사업

구분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합계
응답수(명, %)	24(21.6)	5(4.5)	6(5.4)	16(14.4)	32(28.8)	28(25.2)	111(100.0)

□ 고용위기 지원제도 중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고 싶은 제도

○ 고용위기 지원제도 중 추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고 싶은 제도는 직업훈련 27.4%, 취업성공패키지 26.5%, 훈련연장급여 21.6%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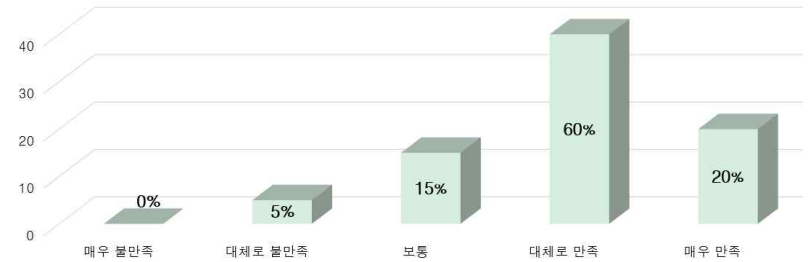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관련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고 싶은 제도

구분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합계
응답수(명, %)	25(21.6)	5(4.4)	6(5.3)	16(14.2)	30(26.5)	31(27.4)	113(100.0)

3.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서비스 평가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신청절차에 측면에서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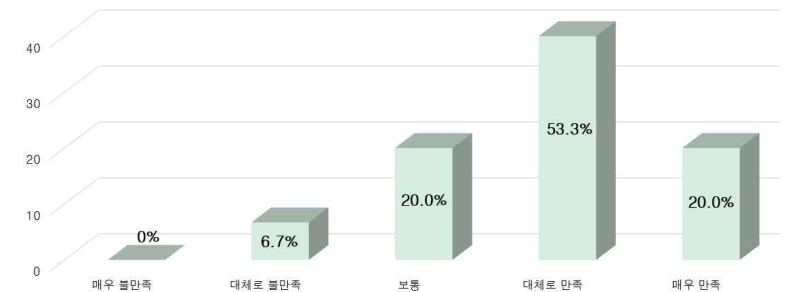
① 훈련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신청절차에 대해 매우만족 20.0%, 대체로 만족 60.0%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80.0%로 나타났음.



신청절차 만족도 - 훈련연장급여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훈련연장급여	0(0.0)	1(5.0)	3(15.0)	12(60.0)	4(20.0)	2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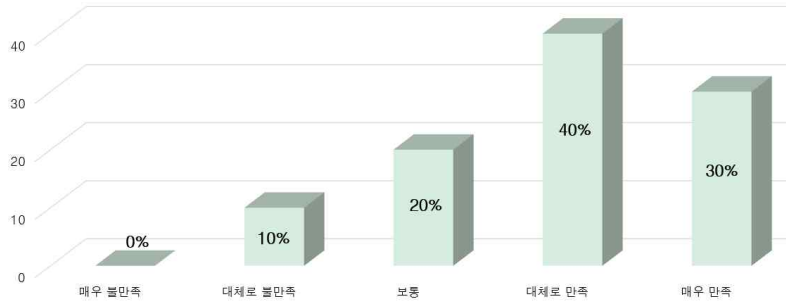
②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 신청절차에 대해 매우만족 20.0%, 대체로 만족 53.3%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73.3%로 나타났음.



신청절차 만족도 - 취업촉진수당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취업촉진수당	0(0.0)	2(6.7)	6(20.0)	16(53.3)	6(20.0)	3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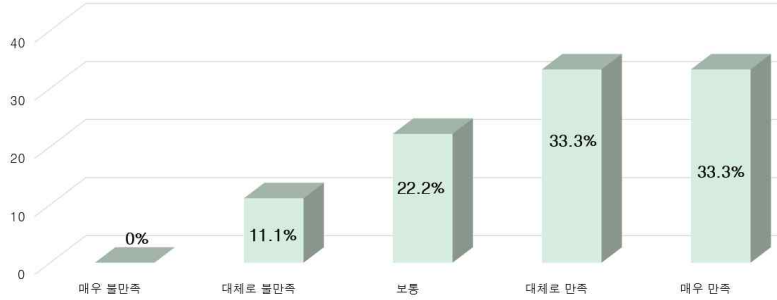
③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절차에 대해 매우만족 30.0%, 대체로 만족 40.0%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70.0%로 나타났음.



신청절차 만족도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0(0.0)	1(10.0)	2(20.0)	4(40.0)	3(30.0)	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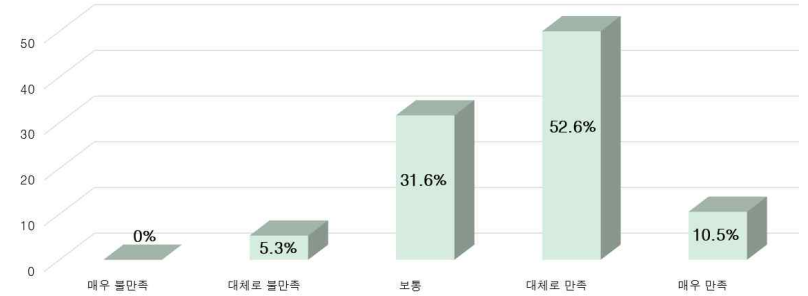
④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절차에 대해 매우만족 33.3%, 대체로 만족 33.3%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66.6%로 나타났음.



신청절차 만족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0(0.0)	2(11.1)	4(22.2)	6(33.3)	6(33.3)	1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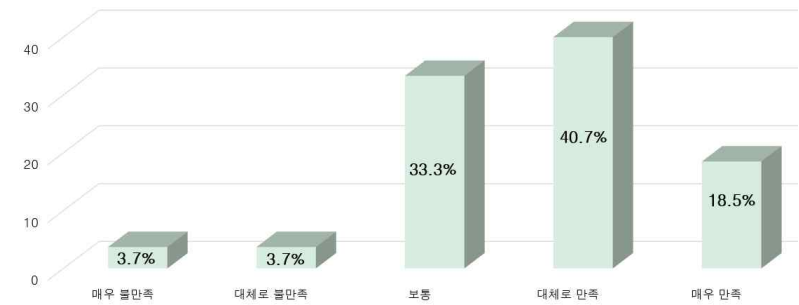
⑤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절차에 대해 매우만족 10.5%, 대체로 만족 52.6%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63.1%로 나타났음.



신청절차 만족도 - 취업성공패키지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취업성공패키지	0(0.0)	2(5.3)	12(31.6)	20(52.6)	4(10.5)	38(100.0)

⑥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신청절차에 대해 매우만족 18.5%, 대체로 만족 40.7%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9.2%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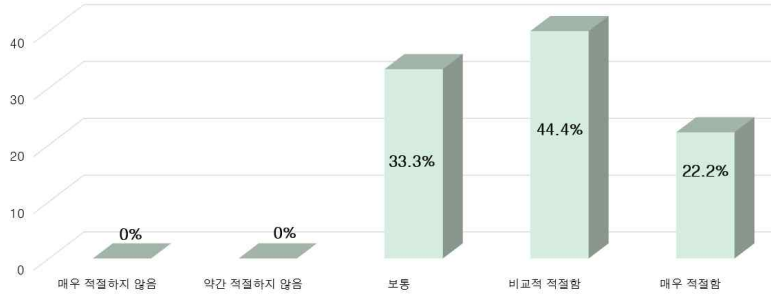


신청절차 만족도 -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2(3.7)	2(3.7)	18(33.3)	22(40.7)	10(18.5)	54(100.0)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지원규모의 적절성

① 훈련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지원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만족 22.2%, 대체로 만족 44.4%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66.6%로 나타났음.



지원규모의 적절성 - 훈련연장급여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훈련연장급여	0(0.0)	0(0.0)	6(33.3)	8(44.4)	4(22.2)	1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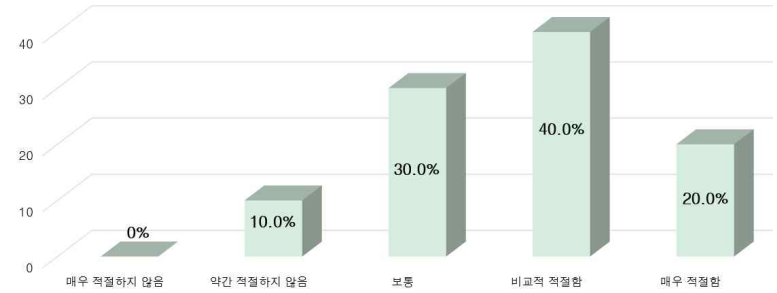
②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 지원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만족 21.4%, 대체로 만족 50.0%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71.4%로 나타났음.



지원규모의 적절성 - 취업촉진수당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취업촉진수당	0(0.0)	2(7.1)	6(21.4)	14(50.0)	6(21.4)	28(100.0)

③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만족 20.0%, 대체로 만족 40.0%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60.0%로 나타났음.



지원규모의 적절성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0(0.0)	1(10.0)	3(30.0)	4(40.0)	2(20.0)	10(100.0)

④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만족 12.5%, 대체로 만족 37.5%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0.0%로 나타났음.



지원규모의 적절성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0(0.0)	2(12.5)	6(37.5)	6(37.5)	2(12.5)	1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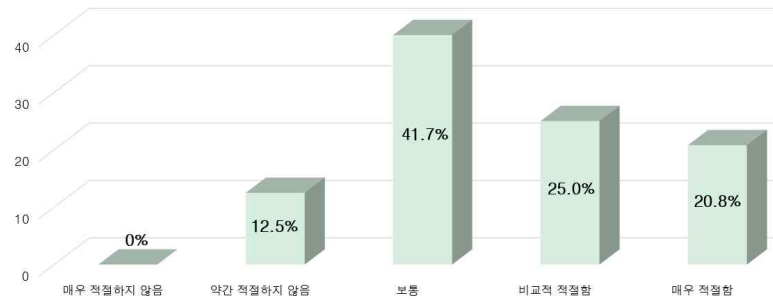
⑤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만족 20.0%, 대체로 만족 30.0%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50.0%로 나타났음.



지원규모의 적절성 - 취업성공패키지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취업성공패키지	0(0.0)	10(25.5)	10(25.5)	12(30.0)	8(20.0)	40(100.0)

⑥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지원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매우만족 20.8%, 대체로 만족 25.0%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45.8%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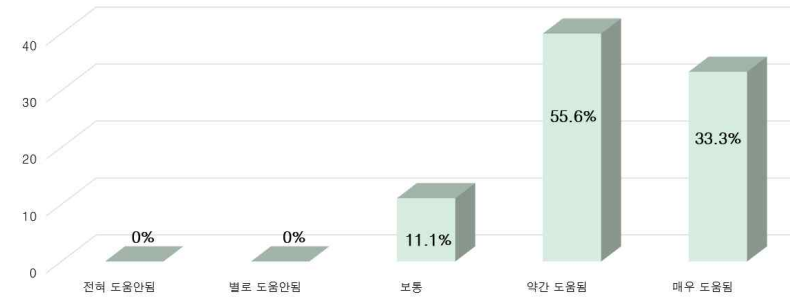


지원규모의 적절성 -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합계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0(0.0)	6(12.5)	20(41.7)	12(25.0)	10(20.8)	48(100.0)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근로자(퇴직자)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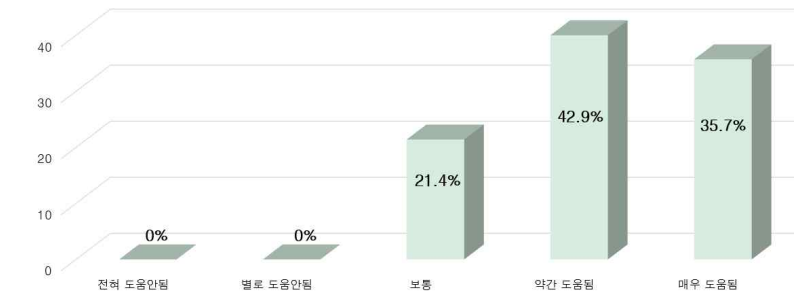
① 훈련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 33.3%, 대체로 만족 55.6%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88.9%로 나타났음.



실제 도움되는지에 대한 만족도 - 훈련연장급여

구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합계
훈련연장급여	0(0.0)	0(0.0)	2(11.1)	10(55.6)	6(33.3)	1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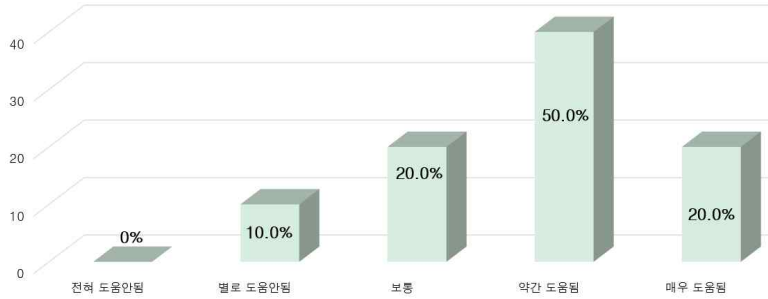
②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 35.7%, 대체로 만족 42.9%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78.6%로 나타났음.



실제 도움되는지에 대한 만족도 - 취업촉진수당

구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합계
취업촉진수당	0(0.0)	0(0.0)	6(21.4)	12(42.9)	10(35.7)	2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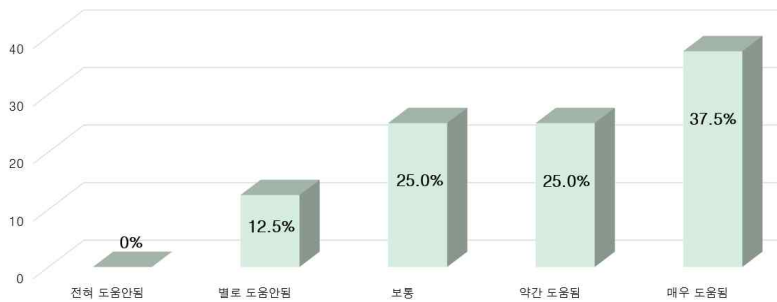
③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 20.0%, 대체로 만족 50.0%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70.0%로 나타났음.



실제 도움되는지에 대한 만족도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구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합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0(0.0)	1(10.0)	2(20.0)	5(50.0)	2(20.0)	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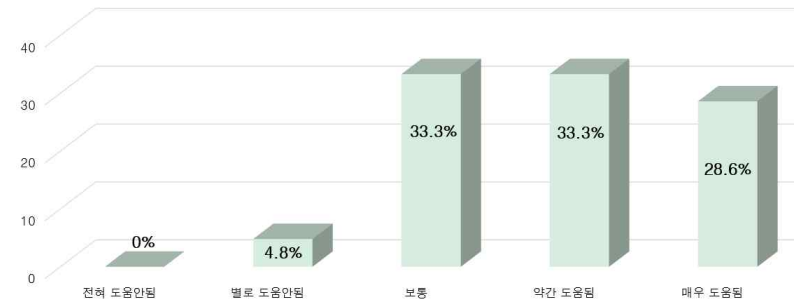
④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 37.5%, 대체로 만족 25.0%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62.5%로 나타났음.



실제 도움되는지에 대한 만족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구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합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0(0.0)	2(12.5)	4(25.0)	4(25.0)	6(37.5)	1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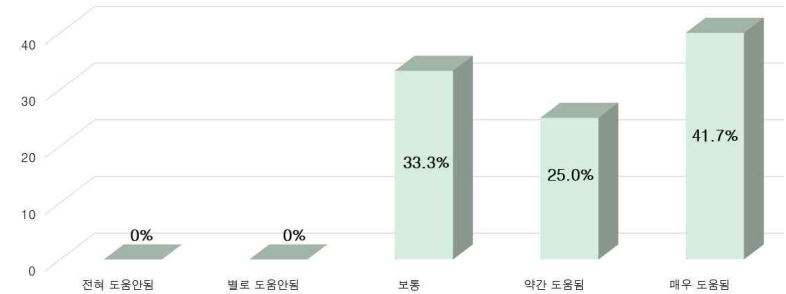
⑤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 28.6%, 대체로 만족 33.3%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61.9%로 나타났음.



실제 도움되는지에 대한 만족도 - 취업성공패키지

구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합계
취업성공패키지	0(0.0)	2(4.8)	14(33.3)	14(33.3)	12(28.6)	42(100.0)

⑥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 41.7%, 대체로 만족 25.0%로 응답하여 만족도는 66.7%로 나타났음.



실제 도움되는지에 대한 만족도 -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구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합계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0(0.0)	0(0.0)	16(33.3)	12(25.0)	20(41.7)	48(100.0)

4.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 매우 도움됨 36.4%, 약간 도움됨 27.3% 등 긍정적 응답이 63.7%로 부정적인 응답 11.3%보다 많아 고용위기 지원제도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구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지원제도 전반적 평가	4(4.5)	6(6.8)	22(25.0)	24(27.3)	32(36.4)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심리적 안정감 기여 정도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심리적 안정감 기여 정도는 매우도움 31.8%, 약간 도움 38.6% 등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0.4%를 차지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지원제도가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심리적 안정감 기여 정도	2(2.3)	6(6.8)	18(20.5)	34(38.6)	28(31.8)

5. 근로자(퇴직자)의 경제활동 상태

□ 현재 일자리 상태



현재 일자리 상태

구분	취업 중이며 구직활동 안함	취업 중이며 구직활동 중	실업 중이며 구직 중	구직활동 의사 없음	합계
응답수(명, %)	4(3.8)	20(18.9)	68(64.2)	14(13.2)	10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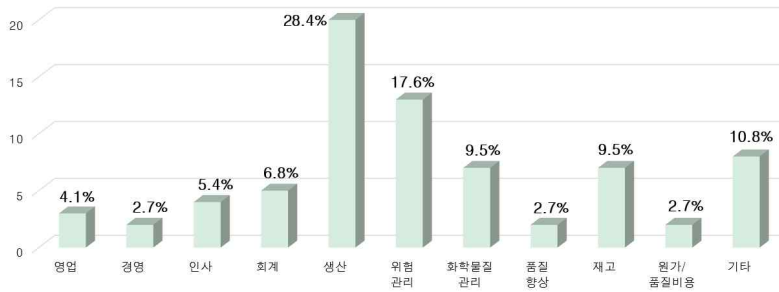
□ 교육훈련 필요 여부



교육훈련의 필요 여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응답수(명, %)	8(7.5)	9(8.5)	20(18.9)	41(38.7)	28(26.4)	10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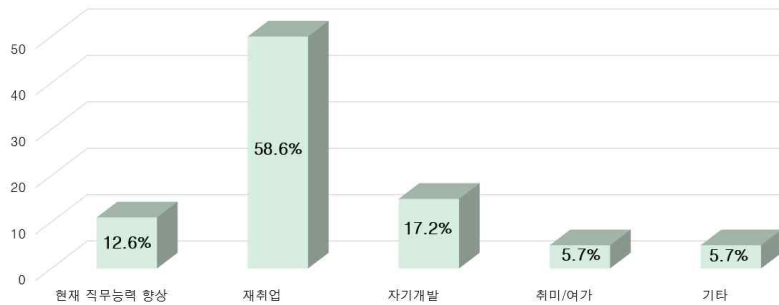
□ 교육훈련 필요 분야



교육훈련이 필요한 분야

구분	영업 마케팅	경영일반	인사 노무	회계 재무	생산 품질관리	위험관리 안전보건
응답수(명, %)	3(4.1)	2(2.7)	4(5.4)	5(6.8)	21(28.4)	13(17.6)
구분	화학물질 관리	SW 활용 품질향상	재고 자재관리	원가/품질 비용관리	기타	합계
응답수(명, %)	7(9.5)	2(2.7)	7(9.5)	2(2.7)	8(10.8)	74(100.0)

□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

구분	직무능력 향상	재취업	자기개발	취미/여가	기타	합계
응답수(명, %)	11(12.6)	51(58.6)	15(17.2)	5(5.7)	5(5.7)	87(100.0)

제4절 사업주 및 근로자 건의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및 고용위기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고용위기 기업지원에 있어 최근 입주한 기업보다는 군산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5년 이상)하고 실제 고용위기의 피해를 입었던 업체들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
-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개선과 관행을 탈피한 행정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 역기업의 요구에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실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고급인력 유출방지를 위해 해당 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에 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단기적인 자금지원보다는 국가사업이나 관공서 물량을 우선 단기적으로 배정하여 기업경영에 원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실업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사업주와 퇴직자 간 맞춤형 교육 설계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제도 요망

제5장 요약 및 정책 건의

제1절 요약

1. 군산시 고용지표 변동 평가

1) 군산시 고용지표 총괄

- 2019년 군산시의 고용 관련 지표는 2018년에 비해 다소 개선
 - 2019년 하반기 고용률, 청년고용률, 취업자 수, 피보험자 수 등 고용관련 지표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예산투입 등 지원정책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다소 호전
 - 2019년 하반기 고용률(15~64세)은 60.7%로 전년동기(58.5%) 대비 2.2%p 상승하였으나, 전국 고용률 67.1% 대비 6.4%p 낮으며, 고용률(15세 이상)은 55.6%로 전년동기(53.1%) 대비 2.5%p 상승하였으나, 전국 고용률 60.8% 대비 5.2%p 낮음.
 - 2019년 하반기 청년층 고용률은 29.4%로 전년 동기(27.5%) 대비 1.9%p 상승하였으나 전국 고용률 43.8%에 비해서는 14.4%p 낮음.
 - 2019년 하반기 실업률은 2.2%로 고용위기 전 실업률 0.7-1.6%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2) 군산시 고용보험 주요 통계

- 구인·구직인원 감소 : 산업위기 지속 및 퇴직인구 역외 유출 영향
-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수 및 실업급여액 감소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18.5월)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증가가 주요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추세 : 제조업은 감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및 운수 및 창고업의 피보험자수 증가가 주요인
- 제조업 및 자동차부품 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감소
- 임금 체불금액 증가

3) 군산시 고용지표 변동의 시사점

- 2019년 군산시의 고용 관련 지표는 2018년에 비해 다소 개선 되었지만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고용지표 개선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 2019년 하반기 고용률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아직 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고용위기 전 실업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9년 하반기 청년층 고용률은 29.4%로 전국 43.8%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제조업 부문은 감소 추세이지만 주로 개인서비스업 사업자 중심으로 증가추세임. 그러나 제조업 및 자동차부품 사업장 및 피보험자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 임금 체불금액도 증가하여 여전히 제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고용지표와 고용보험 변동을 볼 때 군산의 고용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위기 전 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며, 특히 제조업의 고용은 지속적인 하락세로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필요

2. 군산시 산업구조 변화·주력산업 노동시장 평가

1) 군산시 산업단지 생산·수출·고용동향

- 군산산업단지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에도 생산·수출·고용 등 하락 지속
- 군산시 전체 수출액, 2012년 최고점 대비 1/3 수준, 자동차 조선산업 수출액은 2012년의 4.6% 수준으로 추락
- 최근 산업단지 근로자 수 반등 불구 예전 수준의 80% 수준

2) 지역경제 제조업 업황 및 휴·폐업 현황

- 위기지역 지정 후에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하락 : 2년 전 대비 9.1% 감소
- 군산시 휴·폐업 업체 수 2018년 980개, 2019년 1,123개가 순 휴폐업 하여 경기침체가 현재도 진행 중
- 주력산업의 휴·폐업 지속 및 종사자수 감소 지속 :

2018-2019년 중에도 휴·폐업 17개, 최근 4년 종사자수 약 2천명 감소

□ 전북의 중화학공업 수출 전국과의 격차 확대 : 전국 -0.4%, 전북 -39.9%

3) 지역 주력산업 침체 지속으로 산업기반 약화

- 군산시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산업의 몰락과 위기지역 지정
- 자동차·조선산업 등 주력산업 생산 감소로 지역경제 건인력 약화 : 2014년 대비 자동차 -48.4p(전국 -4.4p), 조선 -85.7p(전국 -29.9) 감소
- 전북 자동차산업의 실태
 - 전북 자동차 생산 2012년-2019년 지속적 감소, 2012년의 17% 수준
 - 전북과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격차 확대로 산업 및 고용위기 지속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 중이나 일자리 창출은 1-3년 후 가능
- 전북 조선산업의 실태
 -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으로 생산 1조 3천억, 수출 8.5백억원 등의 경제적 손실과 군산조선소 5천명의 일자리 감소 초래
 - 군산조선소 재가동 요청과 제반 정책지원에도 조선업 경기회복 불투명
 - 조선경기 회복으로 전남, 경남 등 타 지역은 회복세, 전북 하향세 지속

4) 지역상권의 몰락 및 인구유출 지속으로 빈곤의 악순환 지속

- 군산 소규모 점포 공실률 '19년 3분기 25.1%(전국평균 5.9%), 전국평균보다 낮았던 '16년 4분기 3.5%에 비해 7배 이상 증가
- 군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시민들의 자산가치 하락 및 지역 소비에 부정적 파급영향
- 인구유출 가속화로 지역경제 악순환 : 2015년 이후 8,000명 이상 감소
- 군산지역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은 여전히 큰 폭 하락세, 휴폐업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타 지역과의 경제력 격차 확대, 자동차산업 일자리 창출 지연, 조선업 다각화 지연 및 인구유출 가속화로 지역경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절실

제2절 정책 건의

1. 사업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

□ 애로사항

○ 직업훈련 과정 관련

구분	애로사항
모집 및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모아 시스템 적격 여부 확인 권한 부여 필요 - 모집 및 선발 단계에서 접수된 훈련생에 대한 적격 여부를 상위 기관 공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발생 (신청-취소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효율적 사업 운영이 필요) • HRD넷 사업 승인 등 체계적 운영 필요 • 보조금 승인 및 교부 지연으로 과정 홍보비 사용에 어려움 발생
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체험 및 일 경험 등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 (직무체험 연계 등이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직종의 한계성) • 경력단절 여성의 가정 내 역할로 인해 '자녀 돌봄', '부모 병간호' 등으로 결석 및 훈련 참여에 변수가 발생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생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인식개선의 어려움 발생 - 단기직업훈련 특성상 훈련 후 단시간 내 '취업 실적'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 경력단절 여성 특성상 짧은 시간 내 구직활동에 대한 인식전환 및 현실성 있는 구직활동 독려 등 어려움이 발생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인식 전환교육' 참여, 훈련생 간담회를 통한 고충상담 취업상담, 집단상담<직무소양교육>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 후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진행 시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발생 • 취업 후 실적 증빙을 위해 '고용보험 득실확인서' 등 서류 요청 시 개인의 시간적 상황, 기업체 가입 시기 등으로 애로사항 발생

○ 직업훈련 과정 참여자 수당 지급 및 취업 시기 관련

- 훈련생 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의 훈련수당 중복 지급 불가에 따른 퇴직자의 훈련 참여도 감소 및 중도탈락 현상 발생
-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훈련과정이 종료되어 채용연계를 하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시점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발생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 컨설팅/현장점검 위원 비용 책정 :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 강사료 수당 지급기준으로 책정 및 지급하였으나, 강의와는 다소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합당한 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수당지급 기준을 새롭게 신설 필요
- 기업지원 관련 세부규정 제정 필요 : 일자리 사업 특성상 창업 및 중소기업

업 지원 관련지침이 세부적이지 않음. 지원가능 분야 가이드 라인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 등 세부지침이 제정 필요

○ 창업지원 관련

- 창업지원에 대한 창업문화 인식 부족으로 인한 지원포기 : 지역 내 창업지원에 대한 문화 및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여 경쟁을 통한 창업지원 및 필수 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건의사항 및 지원포기 대상자 증가
- 초기사업비 지원대상자 지원포기에 따른 운영 어려움 : 교육 수수료 후 우수 아이템 선정위원회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원 대상자 중 창업자 부담금(현금 30% 이상)의 부담을 이유로 포기(총 1명)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지원금 항목에서 자산성 물품구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포기(총 1명)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목표에 맞추어 운영이 어려웠으나, 목표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 건의 사항

○ 중장기 사업기획을 위한 사업구조 및 지침 개편 필요

- 고용위기지역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사업지침에 적용하기 어려움(시민대상홍보-특강 등 강사비 단가 맞지 않음)
- 계속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단절 기간이 1개월 정도 있어 전문인력의 확보 어려움

○ 훈련생 증식과 훈련수당에 대한 개선 필요

- 훈련생 중 가장의 비율이 높아 훈련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가장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이 많음. 훈련과 관계없는 직종이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훈련생의 가장과 비 가장의 비율]

구분	훈련생 비율(100%)	
	가장	비가장
조성비율	70%이상	30%이하

- 훈련생 중 경제력이 미약한 가장의 경우 훈련기간 중 생계비로 인한 중도 탈락과 조기 취업이 높아지고 있음.

- 개선방안 : 훈련 진행 중 적절한 훈련수당 지급과 훈련시간에 따른 차등 지급.

○ 훈련생 책임감 강화 기준 마련 (훈련비 자부담)

- 훈련생 모집 및 선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도 국비 무료 교육에 대한 훈련생의 책임감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자부담 비율 설정 후 수수료 또는 취업 시 환급하는 방안

○ 창업자부담금 총 사업비 기준 최소화(10%) 설정 필요

- 현재 창업자의 초기사업비의 창업자 부담금 매칭 비율은 현금 30%이상(현물불가)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 창업사업(창업자부담금 10%)에 비해 높은 수준
- 군산 고용위기지역으로 인한 지역의 특성상 교육생의 경제력이 미약한 상황으로서 30% 현금 매칭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초기사업비 1500만원 기준 창업자 부담금 650만원(30.1%)으로 부가세 215만원(10%), 총 865만원에 달함)으로 우수 아이템으로 초기사업비에 선정되었지만 창업자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 발생. 또한 높은 창업자 부담금에 비해 자산성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규정에 의해 창업자의 불만 및 포기사례 발생
- (개선방안) 우수한 예비창업자 확보와 성과 제고, 지역 내 창업육성을 위해 타 부처 창업지원 수준으로 창업자 부담금 매칭 비율 조정 필요

2. 고용위기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위기 지원제도의 문제점

- 고용위기 관련 지원정책이 기존 존재하던 제도의 매뉴얼에 의존하여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식의 방식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으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초기 대응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필요
 - 예를 들어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지원유지, 중소기업 빈 일자리로의 재취업 유도, 사회적경제 확대로 인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 기업육성, 청년층 취업촉진에 집중투자, 지역 일자리창출 등의 지원에 소외되어 있는 중간계층(취업 취약계층, 저소득 취업패키지 지원, 여성·중장년 및 고령자·장애인) 취업 지원 등이 부족
 - 사업대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대책 부족, 실직자 입장에서의 고임금 제조업 위주 직장 형태에서 상대적 저임금 신규 서비스 일자리로의 전직에 대한 유인 부족
- 자동차 산업 및 조선업 등의 제조업 고용축소 및 정규직 고용축소 이후 지역산업의 복원 및 지역에서의 신성장동력인 태양광, 전기자동차 및 자동차 대체부품 제조업, 건설기계 재제조업, 유통·플랫폼서비스업 등의 중점산업의 변경 등 다양한 업종전환 흐름을 반영하는데 미흡
- 지역경제 붕괴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으로 전직 실업자 중 폐업·도산 또는 자영업 종사자 중 중장년 실직자에 대한 대책, 재기 프로그램 및 재창업 자금 융자, 이·직종 전환 프로그램, 영세상인 자활 지원 등의 대책 필요
- 고용위기가 지역 내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고용위기 지역의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역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에 대한 활용도 부족
-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설치 이후 외형적인 확대 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 고용 서비스인 워크넷과의 시스템 연계가 제한적이며 핵심 업무인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구직자가 직접적인 효용성 등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럽지 못함(“구인구직연계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지역 제한 등)

□ 고용위기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은 쉽지 않고 다른 제조업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직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 지원 기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지원 기간이 부족한 경우 노동자들이 자신의 실직 및 이직상황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산업 및 기업관점보다 시민 즉 근로자 개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서 고용위기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이직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및 컨설팅을 광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른 산업 및 타 직종으로의 이직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인턴 등의 방식으로 일정 기간 다른 직업을 직접 경험해보도록 하는 방식의 지원을 계층별, 연령별로 확대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음.
-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용인력 측면에서 단기적인 인력운영의 유연성 제고 및 전문인력 보강, 업무방식의 개선에서 점진적 사업방식의 개선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담당 직원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별 전문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및 고용위기 대책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고용 안정성 보장 필요
 - 직업훈련계획 수립 시 공급자 중심의 정책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먼저 구직자의 연령별 계층별로 직업 경험 및 숙련 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특히 위기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에서의 숙련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내 신산업 위주로 고용 성과를 높여갈 필요성이 있음
- 고용위기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하여 지역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의 제약이라는 틀 내에서 지자체, 고용지청, 유관기관 등이 능동적으로 협력 및 연계 할 수 있도록 재정 사업참여 기회 확보 및 업무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고용 서비스 확대 필요
- 취업지원과 취업 상담의 성공적인 관건이 일자리 정보에 있다고 볼 때 민간영역의 일자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 등의 SNS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필요
- 예컨대, 빈 일자리(vacancy) 사업의 목적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하는데 있다고 볼 때, 좋은 일자리(decent jobs) 정보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 고용서비스 공급 및 접근성 확대 및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모바일 기반의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혁신적인 전달체계 필요
- 산업구조 개편과정에 놓인 지역들에서는 지역 차원의 경제·사회적 지속발전(economically &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을 담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혁신의 타당한 방향을 모색하고 군산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과 연계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실행전략의 수립을 위해 고용위기 지원사업과 지역 노사민정과의 고용 거버넌스 협력적 네트워크 필요
- 고용위기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작업 필요
 - 정책 집행 및 전달체계 등의 관리가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업수행의 애로사항과 전달체계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평가하고 군산지역의 특색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 모색 필요
 -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경험이 많은 연구자들과 결합하여 상시적인 고용대책의 집행을 위해 정책과제 내용, 지역 특성, 업종별 상황, 사업집행 현황, 문제점 개선 및 보완책, 워크넷 및 고용보험 전산망 등을 활용한 각종 지표, 통계 분석, 서베이 등을 통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위주로 점검 필요

안녕하십니까? 호원대학교에서는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의 운영성과 및 평가,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 등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고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설문코자 하오니, 소중한 정책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군산시장·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사가 해당하는 것에 표시(v)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답기업 산업분류 : 자동차기업 기계·조선기업 기타
 2. 협력업체 모 회사 : 한국GM 현대중공업 기타 모회사 모회사 없음

(기업명 :)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활용 현황

[1] 귀사가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 지인의 소개로 ② 필요한 혜택에 대해 찾아보고 직접 방문해서 ③ 관공서 및 관련 기관 직원의 소개로
 ④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⑤ 언론기사, 전광판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서 ⑥ 기타()

[2] 귀사가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문 또는 접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② 군산 고용복지센터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④ 근로복지공단
 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⑥ 군산시청 ⑦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⑧ 기타()

[사업주 관련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직업훈련지원금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납부유예, 지연 과태료 면제)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⑥ 고용촉진장려금(퇴직자 인건비 등)

[3] 귀사에서 이용했던 지원제도는 무엇입니까? 모두 체크해주세요. (중복응답)

-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직업훈련지원금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납부유예 과태료 면제)

-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⑥ 고용촉진장려금

[4] 귀사에서 이용했던 지원제도 중 도움이 되었던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중복응답)

-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직업훈련지원금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납부유예 과태료 면제)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⑥ 고용촉진장려금

[5] 귀사에서 이용했던 지원제도 중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고 싶은 제도는 무엇입니까?

모두 체크해주세요. (중복응답)

-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직업훈련지원금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납부유예 과태료 면제)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⑥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서비스 평가

[6]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신청절차에 측면에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고용유지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② 직업훈련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보험 납부유예, 과태료 면제	①	②	③	④	⑤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용촉진장려금	①	②	③	④	⑤

[7]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지원규모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고용유지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② 직업훈련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보험 납부유예, 과태료 면제	①	②	③	④	⑤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용촉진장려금	①	②	③	④	⑤

[8]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가]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해 주세요.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고용유지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② 직업훈련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보험 납부유예, 과태료 면제	①	②	③	④	⑤
④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용촉진장려금	①	②	③	④	⑤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9]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활용으로 매출, 고용증대 등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0]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2020.4월 예정)이 지역경제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필요하다 ⑤ 매우 불필요하다

[11] 군산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사항이나 고용위기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비싼신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운영성과 및 성과평가 설문조사 (근로자·퇴직자용)

귀사가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남자 여자

2. 귀하의 나이는(만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 귀하의 현재 상태는? : 근로자 퇴직자

4. 귀하의 전 직장(현 직장)의 산업형태는?
 자동차부품 기계·조선업 자동차-조선을 제외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기타

5. 귀하의 전 직장(현 직장)의 종사자수 규모는?
 10명 이내 10-30명 30-50명 50-100명 100명 이상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활용현황

[1] 귀하께서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 지인의 소개로 ② 필요한 혜택에 대해 찾아보고 직접 방문해서 ③ 관공서 및 관련 기관 직원의 소개로
 ④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⑤ 언론기사, 전광판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서 ⑥ 기타()

[2] 귀하께서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문 또는 접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중복 응답)

- ①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② 군산 고용복지센터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④ 근로복지공단
 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⑥ 군산시청 ⑦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⑧ 기타()

[근로자 관련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훈련연장급여(직업훈련기간 중) ②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인상) ③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분(한도 확대)
 ④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자녀학자금 용자) ⑤ 취업성공패키지(참여소득 요건면제 등) ⑥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3] 귀하께서 이용했던 지원제도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 ① 훈련연장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③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분 ④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⑤ 취업성공패키지 ⑥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4] 귀하께서 이용했던 지원제도 중 도움이 되었던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응답)

- ① 훈련연장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③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분 ④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⑤ 취업성공패키지 ⑥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음카드)

[5] 귀하께서 이용했던 지원제도 중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고 싶은 제도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 ① 훈련연장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③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분 ④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⑤ 취업성공패키지 ⑥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서비스 평가

[6]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신청절차 측면에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훈련연장급여	①	②	③	④	⑤
② 취업촉진수당	①	②	③	④	⑤
③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분	①	②	③	④	⑤
④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①	②	③	④	⑤
⑤ 취업성공패키지	①	②	③	④	⑤
⑥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①	②	③	④	⑤

[7]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지원규모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매우 적절치 않음	약간 적절치 않음	보통	비교적 적절함	매우 적절함
① 훈련연장급여	①	②	③	④	⑤
② 취업촉진수당	①	②	③	④	⑤
③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분	①	②	③	④	⑤
④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①	②	③	④	⑤
⑤ 취업성공패키지	①	②	③	④	⑤
⑥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①	②	③	④	⑤

[8]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가] 근로자(퇴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① 훈련연장급여	①	②	③	④	⑤
② 취업촉진수당	①	②	③	④	⑤
③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분	①	②	③	④	⑤
④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①	②	③	④	⑤
⑤ 취업성공패키지	①	②	③	④	⑤
⑥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①	②	③	④	⑤

[9]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하여 주십시오.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	---------	---------	----	--------	--------

① 지원제도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	---	---	---	---	---

[10]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를 이용하면서 귀하의 심리적인 안정감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여 주십시오.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① 심리적인 안정감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 경제활동 상태

[11] 귀하의 현재 일자리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 않음 ②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음
 ③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구하고 있음 ④ 당분간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안할 생각임

[12] 귀하께서는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훈련이 필요한 경우 응답) 어떤 분야의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십니까?

- ① 기획/R&D ② 영업/마케팅 ③ 경영일반 ④ 인사/노무 ⑤ 회계/재무 ⑥ 생산/품질관리 ⑦ 위험관리/안전보건
 ⑧ 화학물질 관리 ⑨ 통계적 문제관리 ⑩ SW활용 ⑪ 품질향상 ⑫ 재고/자산관리 ⑬ 제조혁신 ⑭ 원가개선/품질비용관리 ⑮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14] (훈련이 필요한 경우 응답)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② 재취업을 위하여 ③ 자기개발 차원에서 ④ 취미/여가 차원에서
 ⑤ 기타

- 비쁘신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